

2014 아시안게임은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에서

인천은 대한민국의 구원투수입니다

월드컵 4강, WBC 4강.

국제적인 스포츠대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생산, 소득, 고용 등 막대한 경제효과를 유발합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약 7조억원의 경제효과와 17만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천이 우리나라의 대표선수가 되어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약속합니다.



Good Morning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INCHEON

굿모닝인천

2006 | 4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인천국제공항

Best Airport Worldwide 수상

개항 5주년을 맞는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1위 공항으로 우뚝 섰다. 지난 3월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에미리트에서 열린 제2회 공항서비스품질 국제회의에서 대상인 ‘최우수 공항상(Best Airport Worldwide)’ 등 4개 부문상을 수상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세계 44개국 66개 주요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 이 상을 수여하는데 2위는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홍콩 첵랍콕공항이, 3위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이 차지했다.

개장 첫째 세계 4위를 기록한 뒤 2003년 세계 4위, 그리고 2004년에는 세계 2위로 매년 뚜렷한 발전을 한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제2공항 건설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0년경에는 Global Top 5 허브 공항이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굿모닝인천

2006.4 (통권 148호)



표지설명 _ '4월 눈썹' 벚꽃이 만개한 수봉공원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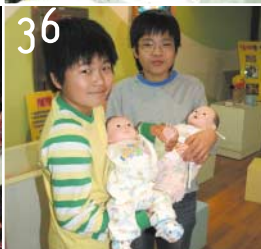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정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6년 4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광고문의 (032-440-2071)

- 04 봄꽃즐기기 | 향기로 말을 건네는 봄꽃과 마주서다
- 08 파이팅인천 | 인천UTD & SK와이비스
- 10 어디든 가보는 거야 | 강화군 아차도
- 12 리포트 | 첨단과학의 거대 실험실, 송도를 해부한다
- 16 아시아가 몰려온다 | 부평 이슬람성원
- 18 함께 나누는 세상 | 장애인 운영 찾집
- 20 문화마을 순례 | 극단 집현(集賢)
- 22 이달의 공연 |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 연극 '이(爾)' 외
- 24 Incheon & Arts Program |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 25 On Stage | 마샬 아츠 퍼포먼스 'Jump'
- 26 인천 冊 | 문학산 & 인천의 산책자들
- 27 만국공원의 기억 展
- 28 굿인천 굿뉴스 | 달동네 박물관, 공공디자인 최우수상 수상 외
- 32 조명 | 제4회 인천환경기술전 (i-ENVITECH 2006)
- 33 동서남북 | 인천교육과학연구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 34 굿모닝時評 | 욕심 버리면 나눌 것이 생겨요
- 35 김치 찰칵
- 36 아이들과 함께 동네 한바퀴 | 인천성문화센터
- 40 인천음식 요리조리 | 밴댕이
- 42 Youthzine | 서구청소년수련관 오픈
- 43 인천시민은 국제시민 | 전채요리(Appetizer) 먹는 법
- 44 만화로 보는 옛날 옛적에 인천은 ④ | 흥두개, 팔미도에 떠오르다
- 46 아심만만 재테크 | 수익은 높게, 위험은 낮게... 해주면 안되겠니?
- 47 참살이 동의보감 | 피부질환
-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가느다란 쌍꺼풀 속의 찰랑거리는 웃음 고정현 씨
- 52 글마당 생각마당 | 이번달 주제 '파티'
- 54 Info Box |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외
- 58 세 · 상 · 만 · 사 · 仁 · 川 · 萬 · 寫 | 여걸 씩스의 맹세





봄 꽃 즐 기 기

향기로 말을 건네는 봄꽃과 마주서다

남쪽에는 벌써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린 지 오래다. 매화를 시작으로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벚꽃, 배꽃들이 피고 지고 훑날리고 떠서 흐르기를 되풀이하며 상춘객의 봄 맛이를 재촉할 터이다. 성격 급한 사람 얹전히 앉아 기다리기가 쉽지 않다. 자칫하다간 이 봄이 그냥 지나갈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시간 없다고 조금해 하진 말자. 혼자라면 어떠 리. 또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 즐겁게 형편따라 봄꽃을 맞으러 나설 일이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성환 (자유사진가)



인천시민들의 오랜 휴식처 **자유공원**에는 30살도 넘는 벚나무들이 공원의 역사를 말해준다. 한미수교백주년기 념탑을 기점으로 어디서든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 중구문화원이 자리 잡고 있는 돌계단 양쪽으로는 개나 리와 벚꽃이 노란빛과 흰빛의 화려함을 경쟁이라도 하듯 빼곡히 자리 잡고 있다. **수봉공원**은 입구에서부터 수 봉산 정상까지 1km의 산길에 벚꽃과 매화, 산수유꽃 등이 만발한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봉산 정상으로 향하 노라면 여기저기서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는 벚꽃을 쉬이 만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찾은 가족이라면 수봉 산 정상에서 놀이기구를 타며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장관이다. 마치 눈이 소복이 쌓인 것처럼 발 아래로 벚꽃이 펼 쳐진다.

가족들과 함께 벚꽃의 진수를 맛보려면 **인천대공원**에 가 보자. 인천대공원 벚꽃놀이는 이미 수도권 시민들에게 그 명성이 자자하다. 자전거광장 에서 후문까지 이르는 산책로에는 수령이 30년 가까이 되는 벚나무들이 키 재기를 하듯 서 있어 그 아래를 걷노라면 후드득 꽃비가 내린다. 벚꽃 이 지고나면 곧 바로 수 천 그루의 철쭉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화도진공원**의 봄은 철쭉이 주인공이다. 동구에서는 질붉은 철쭉이 만개할 때면 화도진축제를 열어 꽃 감상과 함께 즐거움을 더해준다. 동암역에서 문학경기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펼쳐진 **중앙공원**은 조성된 지 오래지 않아 큰 나무는 아직 자라지 않았다. 하지만 잔디가 잘 조성돼 있고 군데군데 봄꽃들이 피어 있어 어린아이들이 뛰어 놀기에 그만이다. 남동구청에서 옛 소래포구로 가는 길은 봄이면 눈꽃 천지로 변하는 듯싶다. 이 일대가 **남동배 재배단지**로 조성된 덕분이다. '남동배'라는 이름 으로 출하되는 배는 시원한 단맛을 자랑한다. 4월 말 경이면 작고 하얀 배꽃이 이 일대를 뒤덮는다. 수산동 일대의 배 밭은 하도 넓게 자리 잡고 있어 배 밭을 눈발으로 착각할 정도로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인다. 배 밭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면 배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나뭇 가지를 다치거나 꽃을 따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 족 과 함 께 라 면 공 원 으 로



1 중앙공원 2 남동배 재배단지 3 인천대공원 4 수봉공원 5 자유공원

한걸음더 _ 봄 공원은 유유자적하며 꽃 감상을 하기에 제격이지만 일부러 공원을 찾았는데 꽃 감상만 하기에는 좀 아쉬울 수도 있다. 자유공원에서는 맥아더동상, 석정루, 중구문화원, 한미수교백주년기념탑, 인천시역사자료관 등이 발길을 잡아끈다. 수봉공원입구의 문화회관에서는 수시로 전시회가 열리고 전통놀이마당에서는 일요일마다 은율탈춤 등 전통공연이 이어진다. 공원 꼭대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공원이 있고 현충탑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인천대공원에서라면 장미원, 어린이동물원, 수석공원 등에서 사진촬영을 해도 좋고 자전거, 인라인 등 레포츠 시설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화도진공원은 미국, 영국, 독일 등과 수호조약 을 체결한 역사의 현장이다.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모습이 밀랍인형으로 만들어져 있어 역사 공부에도 그만이다.

연인과 함께 라면 섬으로, 캠퍼스로

좋은 남과 함께라면 조금은 호젓한 곳이 어울리겠지. 그래, 바다 건너 섬이 좋겠다. 영종도로 건너가 삼목선착장에서 장봉도행 배에 몸을 맡기면 장봉도에 닿기 전 신도에 먼저 일행을 내려놓는다. 신도에서 벚꽃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해발 178m의 야트막한 산인 **구봉산**이 제격이다. 1~2시간 코스의 등산로가 여러 개 있어 마음에 드는 코스를 택하면 된다. 걷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연인이라면 산 정상까지 차를 타고 오를 수도 있으니 걱정할 필요없다. 구봉산 산책로에는 7300여 그루의 산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인천대운동장은 울긋불긋한 꽃밭이 자연 그대로 조성돼 있어 편안한 데이트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노오란 개나리에 이어 분홍 진달래, 철쭉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피었다 지기를 반복한다.

서울에 사는 연인들이 덕수궁 돌담길을 걷는다면 인천의 연인들은 적십자 병원에서 **연수도서관**을 거쳐 배수지로 이어지는 도로가 덕수궁 돌담길 못지않은 데이트 코스가 돼 준다.

도심에서 좀 벗어나고 싶을 때 연인들이 드라이브 삼아 갈만한 곳으로 강화를 꼽는다. 강화에서 벚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북산 벚꽃로**이다. 25살이 넘는 벚꽃이 고려궁지에서 북문에 이르기까지 900m에 이르는 도로에 곱게 피어나 여의도 윤종로 벚꽃에 못지않다. 강화의 **강남고등학교** 교정에도 20~30년생 벚나무들이 화려하게 피어나 눈꽃을 피운다. 강화는 도심보다 일주일정도 꽃이 늦게 피기 때문에 벚꽃놀이를 놓쳐 아쉬운 연인들이 찾기에 안성맞춤이다.



한걸음더 _ 연인과 함께 오랜만에 섬을 찾았다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신도에서 연도교를 넘어 시도에 달으면 수기 해변을 배경으로 지은(송해교)과 영재(비)가 티격태격하면서 사랑을 나눴던 <풀하우스> 세트장이 자리잡고 있다. 또 인근 바닷가 언덕에는 준영(권상우), 해인(김화선)의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를 그린 <슬픈연가> 세트장이 있다. 강화에 벚꽃놀이를 갔다면 고려궁지에서 옛 고려의 흔적을 엿보거나 강화도령 철종이 살았던 용흥궁에서 데이트를 즐겨도 좋겠다. 강화 북문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숲속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면 오읍약수터가 있다. 오솔길을 따라 걷는 재미, 약수의 시원한 물맛이 이곳을 찾는 또 다른 묘미다.

1인천대학교 2강화 북산 벚꽃로 3신도 구봉산 약수터



1계양산 2고려산 3월미산

친구와 함께 라면 산으로

원기 왕성한 친구와 함께라면 조금은 힘든 코스를 택해보자. 꽃도 즐기고 산도 즐기는 방법이다. 인천 시내에서는 **계양산**(394m)이 적당하겠다.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은 봄이면 진달래로 온 산을 붉게 물들인다. 계양산 등산로를 따라 핀 진달래 덕분에 산에 오르는 발걸음이 봄기운으로 가득 찬다. 진달래가 지나간 자리에 짙은 초록 잎과 함께 앞다퉈 붉은빛, 분홍빛을 내뿜는 철쭉도 장관이다. 진달래축제라면 강화 **고려산**을 빼놓을 수 없다. 고려산(436m)은 강화읍, 내가면, 하점면, 송해면에 걸쳐있는데 정상 부근의 산비탈과 능선에 수도권 최대의 진달래밭이 형성돼 있다. 강화 특유의 기후 조건 덕분에 봄이면 20만평에 이르는 군락지에 화려한 자태의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여 멀리서 보면 마치 산에 붉은 물감을 점점이 뿌려놓은 듯 하다. 강화 혈구산(466m)도 등산로에 피어있는 진달래가 장관을 이룬다.

월미산(108m)은 반세기 동안 '금단(禁斷)의 땅'이었다. 덕분에 때문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벚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산이라고는 하지만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고 산책로 양쪽으로 사열하듯 화려한 벚꽃이 만개해 있어 힘들이지 않고 쉬엄쉬엄 산책 겸 등산을 즐길 수 있다. 서구 검단에서 김포로 가는 길에 있는 **가현산**은 해발 215m로 야트막한 언덕을 연상케 한다. 등산로라기보다 산책로로 정상 부근의 진달래 군락지가 아름답다.

한걸음더 _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으로 계양산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계양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에는 계양산성을 쌓았던 돌의 흔적이 남아 있어 역사의 현장에 온 듯하다. 월미산 정상에는 지난해 말 전망대가 자리를 잡았다. 24m짜리 전망대는 농악의 상모돌리기를 모티브로 하늘을 향해 치솟아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360° 회전하듯 빙 둘러 인천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고 노을 감상을 하기에 제격이다. 고려산은 오련사와 연개소문이 태어났다는 집터, 그가 군사를 훈련시키고 말에게 물을 먹였다는 오련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고려산 부근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군, 고려산성 등 둘러볼 만한 곳이 여럿 있다.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올해도 ‘큰 일’ 낸다

지난해 인천UTD는 창단 2년만에 통합 1위와 챔피언 결정전에서 준우승이라는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 국내 프로축구에 돌풍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다. 주요선수들의 이적 등에 따른 전력 누수와 다른 구단의 집중 견제 등으로 지난 시즌과 같은 좋은 성적을 거둘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인천UTD는 조직력과 자신감으로 승부를 건다는 각오다. 지난해 뚜렷한 스타플레이어나 국가대표 선수가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준우승이라는 기적같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조직력과 상대팀에 대한 장외롱 감독의 철저한 분석에서 얻은 '맞춤형 전술' 때문이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력은 약해졌지만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과 결정력 높은 공격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인천은 지난해 준우승이라는 성과와 함께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창단 2년차인 신생팀으로 얻은 가장 큰 소득으로 여기고 있다. 다른 구단들이 오랜 시간 투자를 통해 얻는 것에 비해 지난해 짧은 시간 안에 얻은 선수들의 자신감은 올해 어느 팀을 만나도 쉽게 밀리지 않을 전력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각오에 부응이라도하듯 인천은 지난달 12일 2006 프로축구 K-리그 첫 경기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를 2대 1 승리로 장식한데 이어 15일에 열린 홈 개막전에서도 신생팀 경남을 3대1로 물리치고 쾌조의 2연승을 올렸다.

올해도 서포터즈를 비롯한 시민들의 응원이 인천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지난해 전·후기리그와 챔피언결정전 등 13경기에서 총 31만6591명, 평균 2만4353명으로 관중수 1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원동력으로 비록 인천의 객관적인 전력이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선전을 펼쳐 올해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와 일본의 시오타니 가즈히고 선수를 영입했다. 피커링 선수는 힘과 정교함을 겸비한 대형 타자로 SK의 중심 타선을 보완해 줄 예정이며 시오타니 선수는 타격과 수비 모두를 이미 일본에서 검증받은 선수다.

SK는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한화이글스를 9대2로 대파해 전력을 검증받았으며 시즌 개막전은 4월8일 오후5시30분 안방인 문학야구장에서 현대와 한 판 승부로 시작된다.

SK는 원정경기도 마다않고 찾아가 응원을 펼치고 홈경기 마다 관중석을 가득 메워주는 인천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한국 야구의 발상지 인천에서 올해 우승 신화를 연출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행복 날개’ 펼친다

2005년은 SK와이번스에게는 아쉬운 한 해였다. 구도 100년의 뜻 깊은 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으로 우승을 향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시작해 시즌 3위의 성적으로 준플레이오프에 올랐지만 한화이글스와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2승 3패의 고배를 마시고 ‘가을 축제’에서 쓸쓸히 조기 퇴장했다.

SK와이번스는 2006시즌 캐치프레이즈를 ‘우승을 향한 행복날개! SK와이번스’로 정했다. SK와이번스의 창단 첫 우승 염원이 담긴 캐치프레이즈다. 특히 SK그룹의 CI 변경에 따라 야구단도 CI를 변경해 유니폼을 새롭게 갈아입고 새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올해는 작년시즌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혼연일체가 돼 우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담금질을 했다. 지난 1월 투수조를 중심으로 한 선수단이 1차로 사이판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했고 야수조가 사이판에 합류했으며 일본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53일간의 전지훈련을 통해 팀 전력을 다졌다.

선수 구성도 더욱 탄탄하게 갖췄다. WBC에서 메이저리거급 수비를 보여주었던 이진영 선수를 비롯해 미국인 용병 메이저리거 캘빈 피커링 선수

4 April

인천유나이티드FC SK와이번스		1					
2	3	4	5	6	7	8	
제주(홈)15:00			제주19:00				현대(홈)
9	10	11	12	13	14	15	
대전15:00 현대(홈)		롯데(사직)	롯데(사직)	롯데(사직)	한화(대전)	한화(대전)	
16	17	18	19	20	21	22	
대구(홈)15:00 한화(대전)		LG(홈)	LG(홈)	LG(홈)	삼성(홈)	울산15:00 삼성(홈)	
23	24	25	26	27	28	29	
삼성(홈)		KIA(광주)	KIA(광주)	KIA(광주)	두산(홈)	두산(홈)	
30							
광주(홈)15:00 두산(홈)							

5 May

	1	2	3	4	5	6	
		삼성(대구)	삼성(대구)	전남15:30 삼성(대구)	롯데(홈)	롯데(홈)	
7	8	9	10	11	12	13	
롯데(홈)		KIA(홈)	KIA(홈)	KIA(홈)	두산(잠실)	두산(잠실)	
14	15	16	17	18	19	20	
성남(홈)15:00 두산(잠실)		한화(홈)	한화(홈)	한화(홈)	현대(수원)	현대(수원)	
21	22	23	24	25	26	27	
현대(수원)		LG(잠실)	LG(잠실)	LG(잠실)	KIA(홈)	수원(홈)19:00 KIA(홈)	
28	29	30	31				
KIA(홈)		현대(홈)	현대(홈)				

6 June

				1	2	3	
				현대(홈)	롯데(사직)	부산19:00 롯데(사직)	
4	5	6	7	8	9	10	
롯데(사직)		경남(홈)15:00 한화(대전)	한화(대전)	한화(대전)	LG(홈)	LG(홈)	
11	12	13	14	15	16	17	
LG(홈)		두산(잠실)	두산(잠실)	두산(잠실)	삼성(홈)	삼성(홈)	
18	19	20	21	22	23	24	
삼성(홈)		현대(수원)	현대(수원)	현대(수원)	롯데(홈)	롯데(홈)	
25	26	27	28	29	30		
롯데(홈)		한화(홈)	한화(홈)	한화(홈)	LG(잠실)		

7 July

							1
							 LG(잠실)
2	3	4	5	6	7	8	
 LG(잠실)		 삼성(대구)	 삼성(대구)	 삼성(대구)	 두산(홈)	 전북(홈)19:00	
9	10	11	12	13	14	15	
 두산(홈)		 삼성(홈)	 삼성(홈)	 삼성(홈)	 한화(대전)	 광주19:30	 한화(대전)
16	17	18	19	20	21	22	
 한화(대전)		 LG(잠실)	 LG(잠실)	 LG(잠실)		 서울19:00	
23	24	25	26	27	28	29	
		 현대(홈)	 대구19:30  현대(홈)	 현대(홈)	 KIA(광주)	 포항19:00	
30	31						
 KIA(광주)							

※SK와이번스 평일·토요일 오후 6시30분, 일·공휴일 오후 2시



어디든 가보는 거야 | 강화군 아차도

외로운 심표... 단절을 즐긴다

섬 이름이 낯설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섬에 대한 궁금증은 부풀어 오른다. 황사 때문인지 물안개 때문인지 시야가 아물거리면서 섬을 향한 여정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자아낸다. 아차도는 주문도와 불음도 사이에 용이처럼 박혀있는 섬이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가는 길 _ 강화도 외포리에서 서도면행 배를 타면 주문도-아차도-불음도 순으로 운항하는데 여름 성수기 이전까지는 하루 두차례 정도 왕복한다. 차를 싣고 갈 수도 있다. (문의 _ 삼보해운 932-5007)

섬 정보 _ 제철에 가면 해안에서 자유롭게 굴을 까거나 낚시를 즐길 수 있다. 해수욕장은 없지만 갯벌에서 조개잡이, 머드팩 등 갯놀이를 여유롭게 할 수 있다. 민박, 식사 등 섬 안내는 진경식 이장(011-331-9619)에게 문의하면 된다.

외포리 포구를 떠난 삼보11호 여객선은 스크루 소리만 컸지 속도는 영 시원찮다. 새우깡의 유혹이 없다는 것을 눈치 챌 것일까, 그 혼한 갈매기조차 따르지 않는다. 이른 봄, 그 바다에는 교통체증이 없다. 강화도 앞바다를 1시간30분 남짓 한가롭게 헤쳐 나간 완행여객선은 주문도에 먼저 닿고 뱃머리를 바로 아차도로 향한다.

그 섬은 마치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듯 잔뜩 움츠려 있었다. 멀리뛰기라도 하면 뛰어넘을 만큼 주문도와는 가깝게 있는 섬이지만 '격강이 천리'라고 두 섬을 살 빠른 물길이 갈라놓고 있다.

'아차도'라는 이름은 물에서 천년, 바다에서 천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도중에 임신한 여인을 보고 '아차'하는 순간에 바다로 떨어져 그대로 섬이 되었다는 전설에서 붙여졌다. 소박한 전설을 품은 섬답게 그 섬은 오래 선착장에 있을 법한 시끌벅적한 난장 없이 소박한 모습으로 이방인들을 맞이한다.

23가구 38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차도는 지금은 바람결에 노인네들 잔기침만 묻어 나오지만 분단이 되기 전까지는 강화군에서 가장 부유한 섬으로 꼽혔다. 파시 때는 황해도와 충청도에서 몰려든 300~400여척의 배가 선창에 빼곡히 정박하곤 했다. 면사무소도, 학교도 이 섬에 있었다. '왕년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만한 섬이지만 북쪽이 막히면서 앞 바다는 줄지에 '단절의 바다'가 되었다.

아차도는 어엿한 해수욕장이나 탄성 터질만한 기암절벽이 있는 섬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이 섬의 매력이다. 손 타지 않은 원초적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 섬 고유의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

해안선 길이가 고작 5km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빙둘러 한바퀴 도는데 한 시간이면 족하다. 명승지는 없지만 구석구석에 사람을 끄는 포인트는 있다. 마을에서 북쪽해안으로 가려면 빼물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오솔길 마루턱에서 서면 바다 여백에 세워져 있는 빨간 등대가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낸다. 북쪽해안에는 한여름에도 손 시린 물이 샘솟는 얼음낭이라는 샘터가 있다. 옛날 어부들은 출항하기 전에 이 물로 목욕재개하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다고 한다. 서검도, 미법도 등 낯선 섬들이 손에 닿을 듯 하다.

동쪽으로 돌면 마치 고래가 한마리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30m 높이의 꽃치산이 솟아 있다. 멀리서 보면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이지만 모래톱으로 아차도와 이어져 있다. 꽃치해안에는 촉감 좋은 갯벌이 펼쳐져 있다. 초록빛 깔을 떠는 이곳의 갯벌은 자세히 보면 금가루를 뿌린 듯 사금파리가 박혀 있다. 잔파도가 새겨놓은 물결무늬 갯벌이 깨진 거울처럼 봄햇살을 난반사시키며 몸을 나른하게 만든다. 고즈넉하게 여유로움에 폭 빠져 있다보면 '아차, 세상은 지금은 멋시더라' 하는 몽환적 독백이 튀어 나올 정도로 한적한 곳이다. ☀

첨단과학의 거대 실험실, 송도를 해부한다

송도를 아직도 바다를 매운 황무지나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는 곳쯤으로 알고 있다면 이제 그런 편견은 버려야 한다. 바다 끝에서는 해안선을 새로 그리는 작업이 한창이긴 하지만 매립공사가 끝난 지 오래된 383만평(1~4공구)에서는 최첨단 과학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셀트리온, 기업체R&D센터 등 굴뚝 없는 공장에서는 조용히 최첨단 생산품들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송도는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중추 역할은 물론 21세기 첨단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산업도 주도해가고 있다.

글·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정식 (자유사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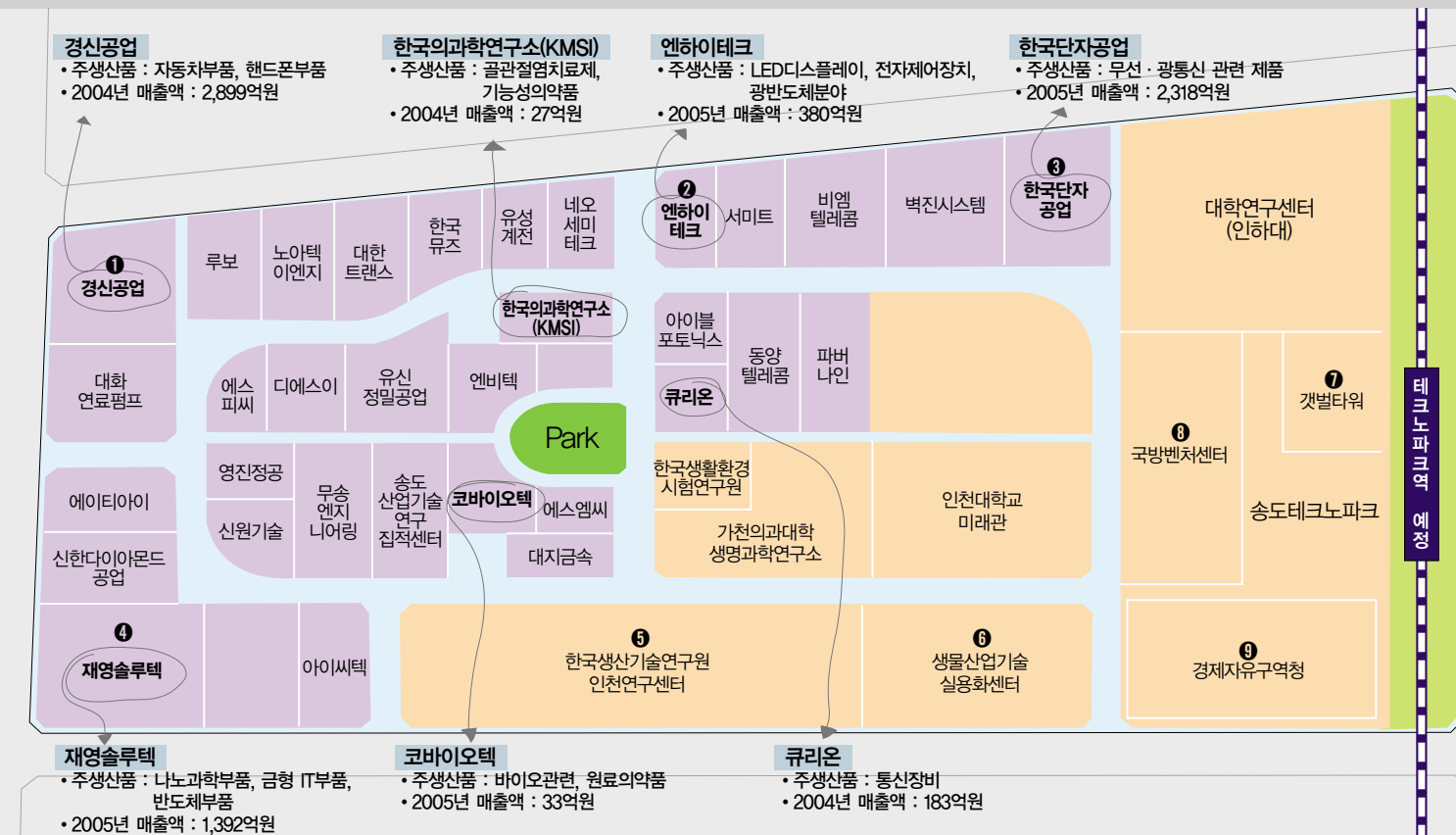
첨단기술의 선두주자들 **송도테크노파크**에 모여

연수동에서 송도국제도시로 향하는 다리를 건너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21층의 갯벌타워다. 송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빌딩 안에는 40여개의 최첨단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모여있는 이 건물에 들어서면 강남 테헤란로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2004년 7월에 문을 연 갯벌타워(Tower to get pearl)는 이름그대로 진흙 속에서 숨은 진주를 캐내듯 알짜배기 기업과 기관들로 한층 한층 빈공간을 채워왔다. 그 건물 바로 옆에는 30여개의 벤처업체가 입주한 국방벤처센터와 시험 생산동이 들어섰다. 또 송도테크노파크 단지 내 13만7천 평에는 35개 기업체의 R&D센터와 대학연구시설, 국·공립 연구기관들이 다닥다닥 자리를 차지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동북아 IT·BT경제활동 중심지의 면모가 차근차근 갖춰져가고 있는 것이다. 5만846평의 산업시설용지에는 한국단자공업, 큐리온, 한국의과학연구소, 엔하이테크, 유성계전 등 전자·정보기기(16개), 생물산업(4개), 신소재(2개), 정밀기계·메카트로닉스(13개) 분야의 유망 첨단기업연구소가 90% 이상 입주를 마친 상태다. 게다가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갯벌타워 인근에 21층과 6층, 2개 동의 산업기술문화 복합단지를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 갯벌타워 입주현황 |

21층	경제자유구역 비전21 홍보관
20층	갯벌푸드
19층	경제자유구역 비전21 홍보관
18층	(주)에스아이글로벌, (주)포커스, (주)드림라인, (주)엑스커뮤니케이션
17층	인천신용보증재단 한국표준협회, 다익국제특허법률사무소,
16층	경인카네기연구소,(주)에스아이글로벌, 세진경영연구원, 인천벤처기업협회,
15층	중소기업지원센터
14층	2014아시아안게임유치단, (주)랜드포스코리아, 아세아 감청평가법인
13층	선박감사기술훈회
12층	선박감사기술훈회
11층	셀트리온
10층	CES
9층	AP솔루션, 타이엔, 삼건아이엔씨
8층	극지연구소, 명산중공업, Dorken MKS System
7층	극지연구소
6층	(재)송도 테크노파크
5층	극지연구소
4층	극지연구소
3층	생산기술연구실실험실, 옥시(Oxy)
2층	국제회의장
1층	은행

| 송도 산업기술단지 입주현황 |





동물세포연구,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에서 다시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기대되는 바이오산업을 주도한다. 취약했던 생산인프라는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한 바이오의약품의 선진국 진출과 신장·개발 등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 센터가 건립되어 선진국 수준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국내외 제약회사들과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의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 제품개발과 수출 지원 및 위탁생산을 맡게 된다. 가령 희귀병에 대한 치료약이 송도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생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5,000여평의 센터부지에는 미생물발효와 동물세포배양, 완제라인을 갖춘 생산시설 공장동과 미생물발효 실험실, 동물세포배양 실험실 등이 설치된 공정·개발동이 들어섰다. 한 때 좌절됐던 줄기세포 연구의 꿈이 송도에서 다시 꿈틀거리고 있으며 항암제, 당뇨병치료제, 노화방지제 등 최첨단 바이오제품들을 생산라인을 통해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동아제약, 종근당, CJ 등 국내 제약회사와 위탁협약을 맺은 상태로 올해 시설과 시스템 등이 시운전에 들어갔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위탁생산을 수행하게 된다.

과학과 기술을 융합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난해 초 송도에 입주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전통 제조기술에 IT·BT·NT 등의 첨단산업을 접목한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중소기업 현장으로 신속하게 이전해 주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다시 말해 과학과 기술을 융합하는 핵심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기술기반이 취약한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의료기기, 반도체, 첨단생산시스템 등을 개발·연구한다. 또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개방해 연구기반시설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용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우리시에 더없이 뛰어난 연구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있다. 1만여평의 연구센터에는 현재 102명의 박사과 38명의 학생연구원을 포함해 300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상주해 있다. 또 생산기반기술본부, 생산공정기술본부, 신소재본부 등의 3개 본부와 나노표면기술팀, 디지털가상설계팀, 플라즈마 응용팀 등 14개 연구팀, 기타 센터로 구성돼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생명공학산업의 뉴리더, 셀트리온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내 5만7천평에 자리잡은 셀트리온은 첨단 생명공학기술과 대규모 동물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해 바이오의약품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한미 합작회사이다. 지난 2002년 2월 미국의 벡스젠(VaxGen)사와 KT&G 등이 출자해 설립했다. 셀트리온은 관절염 치료제, 항암제 등 각종 치료용 생물학약품 생산능력이 세계 3위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외자유치 1호 기업이다. 지난해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 기업인 BMS(Bristol-Myers Squibb)와 10년간 2조원에 달하는 바이오 신약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BMS사가 개발한 관절염 치료용 바이오신약인 아바타셉트(Abatecept)등 각종 신약을 생산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 관절염 치료제인 '오렌시아'는 한국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신약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생산설비를 보강해 세계 1위의 생물학약품 생산능력을 갖추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나설 전망이다.



또다른 실리콘밸리를 꿈꾼다

송도는 이렇게 최첨단과학도시라는 본연의 색깔을 찾아가며 황해에서 블루오션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다. 현재 입주한 최첨단 관련 기업과 국·공립 연구소 그리고 대학연구소에서는 전문 연구원들이 불철주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밤이 깊어갈수록 연구실의 불빛은 오히려 더 환하게 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첨단과학 기업체와 기관들이 우리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앞다투어 송도 입성을 기다리고 있다.

UN ESCAP APCICT

국내 처음 유치된 UN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센터(UN ESCAP APCICT)는 오는 6월 중 경제자유구역청 3층에 임시 사무실을 꾸민다. 이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고위공무원과 기업 CEO, IT교육기관의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IT교육훈련과 정책자문, 정보교류를 통해 국제적 협력을 증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교육생들은 IT강국 한국은 물론 IT허브 도시 인천을 홍보하게 될 것이다.

스위스 규델사의 로봇공장 설립

스위스 산업용 정밀기계전문기업인 규델(Gudel Group AG)사는 송도지식정보단지 내에 3,400평 규모의 산업용 로봇조립공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5일 APEC회의에서 인천경제청(청장 이환균)과 규델사(CEO 한스-울트리히 쿠르트) 간에 총6백만 달러규모의 투자계약

(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6일 그 1차분인 250만달러의 투자유치 본계약을 체결했다. 규델사는 올해안에 생산공장을 준공해 가동할 예정이며 11월부터는 다공질 로봇(Gantry Robot)을 GM대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할 예정이다. 1954년 설립된 규델사는 세계 9개국에 지사와 현지법인, 13개국에 대표사무실을 두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이전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송도 갯벌타워로 이전한다. 남극세종기지과 북극다산기지를 보유한 국제적인 극지연구기관으로 21세기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연구, 극지에 관한 첨단응용과학 연구 등을 한다. 한편 (재)송도테크노파크는 4월 과학의 날을 맞아 갯벌타워 1층에서 각종 행사와 함께 세종기지 모형과 고래뼈, 극지암석류 등의 채집물 등 극지 관련 전시회를 연다. (본지 56쪽 참고)



순번 대기 번호표 뽑았어요!

정보통신부와 우리시는 2010년까지 3천772억원을 투자해 송도에 세계적인 전자태그(RFID)클러스터를 조성해 'u-IT허브'로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송도국제도시 산업기술단지 내 인하대 산학협력관 부지에 '인천자동차 부품기술센터'가 들어선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5천여평 부지에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텔레매틱스, 기계, 전자, 신소재 등 각종 연구시설 등을 갖춘 3층 규모의 건물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미국의 벡스젠(VaxGen)사는 송도 바이오단지 내에 '제약제조공장'을 짓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서울 역삼동 사옥을 2009년까지 송도로 이전하기로 하는 등 대기업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한 손에 코란 든 파란 눈의 ‘인천인’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이 인천에서 제2의 인생을 그려가고 있다. 그들 중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이슬람교도들이 바다 건너 수억 만리에 고국을 등지고 우리시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다. 고려시대 대식(大食)국으로 불리던 이슬람제국의 아랍상인들이 현대판 사라센의 모습으로 우리시에 정착해 또다른 인천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 역시 오는 12월 아시안게임 유치결정을 앞두고 인천에서 아시아의 축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글 • 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피부색은 달라도 국적은 하나

우리와 다른 피부색, 다른 체취를 가진 사람들이 매주 금요일 정오가 되면 약속이나 한 듯 하나둘씩 모여 든다. 챙이 없는 사발모양의 모자를 쓴 사람도 눈에 띄고 흰 천을 둘둘 말아 머리에 쓴 사람도 보인다. 문득 건조한 사막과 허리 굽은 낙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어릴 적 정신없이 보던 만화영화가 떠오르고 모래바람 불어오는 먼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게 된다.

지난 2004년 10월, 조금은 낯선 문양과 문자로 장식한 이슬람성원이 부평에 문을 열었다. 우리시와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무슬림(이슬람교도)들은 금요일 정오가 되면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다. 신도들이 손수 낸 성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이곳은 그들이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자 일주일에 한번 모여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안식처다. 이들에게 이슬람은 종교나 이념 이상의 의미를 갖는 삶의 모토이자 생활이다.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동공단과 부평, 가좌동 등의 공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한국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고 이미 한국 국적을 얻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인천의 문화에 흡수되어 하루하루를 인천사람으로 생활하며 짭조름한 바다 공기를 마시고 함께 호흡하고 있는 같은 시민, 같은 주민이다.

유창한 한국말솜씨를 자랑하는 최무빈(파키스탄, 32)씨는 우리나라에 온지 10년이 넘었고 지난해 정식 인천시민이 됐다. 인천이 좋아서 부득이 인천시민이 됐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때 바다를 볼 수 있고,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도 갈 수 있어 좋고요, 인천의 모든 게 정겹고 좋아요.”라며 마치 준비한 모범답안처럼 서슴없이 대답한다. 인천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는 레헤만(파키스탄, 30) 씨도 세살바기 딸을 두



고 있으며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10년차 ‘인천토박이’다. 많게는 200여명 이상이 이곳에 모여 예배를 한다고 하니 우리시에도 적지않은 무슬림들이 생활터전을 가꾸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외국인 수가 3만명이나 되는 걸 보면 아시아는 물론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시가 살기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우리시에 다시 온 현대판 사라센

이런 풍광들이 우리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우리시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1세기 초인 고려시대 ‘대식(大食)’으로 알려진 이슬람 제국의 아랍 상인들이 1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와서 우리나라와 간헐적으로 교역을 시도했었다. 사료에 의하면 무역항로 중 ‘자연도(紫燕島)’라고 불리는 곳이 지금의 영종도를 말하며 그곳을 통해 아랍상인들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격적으로 한국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된 계기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슬람국가인 터키가 미국다음으로 많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면서부터이다. 때문에 한국전쟁과도 관련이 많은 우리시에 이슬람교도들의 발길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이웃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통해 다시 한번 아시아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그밖에 이슬람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

부평 이슬람성원 1층에는 외국인 무슬림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식료품점이 있다. 우리가 된장이나 김치 없이는 한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듯이 무슬림들 역시 그들만의 음식문화가 있다. 무슬림들은 ‘할랄’이라는 종교의식을 통해 도살한 고기만을 먹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 할랄푸드와 각종 식료품이 판매되고 있다. 파키스탄 지방의 전통차와 석류엑기스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 부평성원까지 올 수 없는 무슬림들이 임시로 예배를 드리는 곳인 ‘무살라’라고 하는 임시예배소가 있다. 911테러가 발생하기 전에는 청천동, 남동공단, 간석동 부근 등 6군데가 있었지만 지금은 동암역 부근에 하나만 남아 있다. 지난 2월호에 소개했던 아랍계 식당 ‘사하라텐트’ 역시 무슬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이다.

따뜻한 차 한잔에 사랑이 모락모락

사람과 사람이, 세상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공간이 있다. 맛 좋은 차를 저렴하게 마실 수 있다는 건 부수적인 즐거움에 불과하고 그 보다 더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직접 음료도 제조하고 서빙도 하는 찻집이 우리시 곳곳에서 커피향보다 더 진한 정을 뿜어내고 있다.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이상의 +α(플러스 알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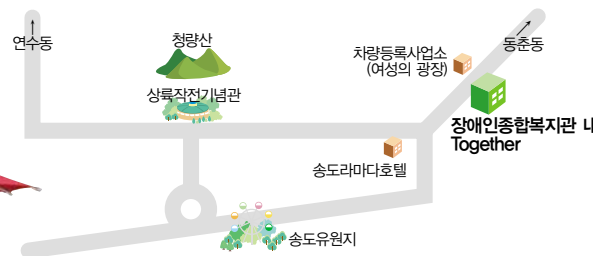
글 · 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혼자 마셔도 여럿이 즐거운

여럿이 함께 (Together)



오전 10시 30분이 되면 박윤미(24세, 정신지체장애 2급) 씨와 구지연(22세, 언어장애3급) 씨는 신이 난다. 요즘 한창 성업 중인 take-out 점에서 일하면서부터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맞고 있다. 주문과 계산은 꼼꼼한 성격의 윤미 씨가 맡고 음료제조는 음식 만드는 데 자신있다는 지연 씨가 맡는다. 연수구 동춘동 장애인종합복지관 한켠에 마련된 'Together'에서는 500원~1,500원의 가격으로 다양한 음료를 골라 마실 수 있다. 오전 11시~12시30분 사이에 원두커피를 주문하면 따뜻한 토스트도 무료로 제공해 인근의 바쁜 직장인들은 간단하게 요기도 할 수 있다. 포장은 기본이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매장 옆에 마련된 빨간 파라솔에 앉아 한껏 분위기를 연출해 볼 수 있다. 멀리 보이는 서해의 낙조도 감상하며 여유있게 차를 마실 수 있어 좋다.



영업시간 _ 10:30~16:30 (월~금)
문의 _ 833-3059 www.icjb.or.kr



찻잔 속 노을 타는
낙조(落照)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30여분간 들어가면 장봉도에 도착한다. 아늑하고 조용한 섬에 비밀스러운 보물처럼 낙조 조망지가 숨어있다. 바로 장봉해림재활원 내에 위치한 '낙조' 카페다. 이름 그대로 해질 무렵에 '낙조'에서는 바다도 찻잔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드는 모습을 고스란히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은 재활원에 봉사활동을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는 쉼터이지만 섬에 여행 온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놀이 공간이기도 하다. 각종 차(茶)와 음료, 간식거리, 간단한 주류가 판매된다. 이곳 역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에 터무니없이 저렴하다. 장봉해림원에서는 직장인들과 여행객들을 위해 전망 좋은 세미나실과 펜션을 저렴하게 대여하고 있다. 한가로운 바다의 정취에 빠져볼 수 있고 장애인들과 어울려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다. 4월에 찾은 장봉해림원은 벚꽃이 팝콘처럼 만발해 더없는 선물이 돼준다. 육지보다 일주일정도 늦게 만개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찾아오는 길 _ 신공항 고속도로에서 화물터미널 방향으로 진입하면 삼목선착장(세종해운 884-4155)에 닿을 수 있다. 이곳에서 장봉행 선박을 이용해 섬에 도착한 후 장봉해림재활원을 찾으면 된다.

영업시간 _ 09:00~17:00

문의 _ 751-8051 www.jbhl.or.kr



어울림 더울림
어울림

옛 시민회관 옆 인천명품관 1층에 자리하고 있는 '어울림'은 지나가는 연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은은한 조명에 안락해 보이는 소파, 세련된 인테리어는 어느 카페와 다르지 않다. 커피와 녹차 등 대부분의 음료는 2,500~3,500원 정도. 저녁에는 간단한 주류도 판매한다. 테이블마다 컴퓨터를 설치해 만남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홀이 제법 크고 빔프로젝트, 화이트보드, 마이크 시설 등이 완비돼 세미나 혹은 단체 모임용으로 예약되기도 한다. 게다가 음료비만 내면 무료로 홀을 빌릴 수 있다. 어울림은 이름 그대로 장애인들이 사회에 어울려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곳이다. 아래쿠폰을 오려 가면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마실 수 있다.



영업시간 _ 10:00~22:00(월~금) 문의 _ 866-3270

장애인 운영 찻집을 이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이 공간만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없는 곳,
미리 알고 간다면
놀라는 일은 없겠다.

반말은 NO!
장애인들 중에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분들이 많다.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주문할 때 종업원이
한번에 알아듣지 못했다면
한번 더 말해주는
센스를 발휘하자.

한번 오면
또 오고 싶어요~
종업원들은 두 번째 오신 분들을
대부분 기억하고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준다.
한번만 와도 그 다음은 단골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여럿이라는 공간
어울림

본 쿠폰을 가져오시면
500원을 할인해드립니다.

북치고 장고치고 극단 집현(集賢)

글 • 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로 시작되는 정지용 시인의 ‘고향’은 너무나 변해버린 고향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나 있다.

빠른 물살을 타고 씻겨져 나가는 고향의 모습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고향의 땅일 것이다. 땅이 있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결이 있기에 고향에는 힘이 있다. 그 무엇으로도 밀어낼 수 없는 그 힘이 또 다른 고향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동구 화수동에 있는 전통극 연희단체 극단 집현을 취재하

러 가면서 그들이 오늘날 변함없이 고향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극단 연습실은 중요무형문화재 90호로 지정되어 있는 황해도 평산 소놀이굿 전수관에 있었다. 지하 연습실로 들어섰을 때 반갑게 맞아주는 단원들의 밝은 웃음이 아직 이른 봄의 쌀쌀함을 덮어 주었다.

현재 극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경희씨는 ‘집현의 어제와 오늘’을 준비한 자료를 보여 주면서 친절하게 집현의 발자취와 비전을 들려주었다. 집현의 역사는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극단을 창단한 고(故) 조일도씨는 드라마센터에서

연극을 공부하던 배우면서 1978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희곡 부문에 당선된 작가였다. 그는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고향인 인천에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극단을 창단했는데 바로 ‘집현’이다.

창단공연 작품 ‘리어왕’을 시작으로 꾸준히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서 전통연희극단으로 기반을 다져 오던 조일도씨는 지병으로 작년에 별세해 천상의 무대에 서고 있고 지금은 창단멤버였던 이병희씨가 연출을 맡고 있다.

현재 단원은 15명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 90호 황해도 평산 소놀이굿을 전승하는 전문연극인들이다. 연기는 기본이고 모두 악기도 다룰 줄 아는 연희 기량이 뛰어난 전문배우들이 지금의 집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연령층도 20대부터 4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젊은 극단’의 활기가 넘쳐나고있다. 그동안 연습실이 없어서 다른 곳을 빌려 쓰다가 작년에 화수동에 동지를 마련한 단원들은 새롭게 구상한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을 기대에 부풀어 있다.

집현이 지향하는 것은 우리 것을 현대에 맞게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전통마당놀이 · 음악극 · 실험연극 · 퍼포먼스 등 형식은 다양해도 변함없이 담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을 찾는 정체성이다. 그동안 해학과 풍자가 담긴 고전작품을 마당극으로, 굿으로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다. 우리 춤과 가락, 노래의 출발점이 굿이고 무당은 당대 최고의 예인이고 광대며 배우라는 생각으로 배우들은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전통예술의 악기, 리듬, 음악, 춤, 소리, 노래, 복식, 연기, 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현대적 감각으로 가미해서 북의 합주로 극의 리듬을 이끌어 내었다.

지난해 년버벌 리추얼굿 퍼포먼스 ‘소원성취 발원이요’로 미국, 체코, 이태리 등의 초청을 받아 해외공연을 다녀왔다. 대사가 없어도 굿으로 제의와 놀이의 성격을 담아서 벌인 퍼포먼스는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음악이 바탕이 되면서 타악과 북, 제의적 옷차림으로 남 잘되기를 빌어주고 액땜을 하는 소원성취 내용에 사람들은 뜨거운 갈채를 보내왔다.

집현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청소년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이 늘 준비되어있다. 청소년을 위해서 만든 작품인 ‘애랑야곡’ ‘호질’ ‘황진이 신곡’으로 학



생들을 위해 기꺼이 학교로 찾아가서 공연을 하기도 한다. 단순히 공연을 보여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99년부터 극단 집현과 인연을 맺고 전문 연극배우로 살고 있는 장재화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문화재’에 비유하면서 전통을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내는 창조의 기쁨이 무대에 설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했다. 그녀는 대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타악으로 연극을 가르치면서 봉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배우다.

집현의 단원들은 배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작품창작과 의상 작업까지 모두 의견을 나눈다. 5월12일에 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대에 올려지는 고(故) 조일도 추모공연 ‘북치고 장고치고’를 준비하는 단원들은 유고희곡집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

오늘도 지하 연습실 마루바닥 위에서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 몸짓이 새롭게 탄생되고 있다. ☀





눈으로 읽는 고전명작 연극시리즈
김유정의 『봄봄』

연극으로 만나는 김유정의 문학.
김유정의 대표적인 단편소설인 〈봄봄〉 〈금파는 공발〉 〈소낙비〉를 경기도립극단의 연극으로 만나게 된다. 토속적인 언어와 회화적인 묘사, 그리고 살아있는 인물들은 연극 그 자체이다. 김유정이 묘사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학세계를 연극적인 정서로, 새로운 감동으로 꾸민 무대이다.

일시 _ 4월 21일(금)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티켓 _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문의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 (760-3466~7 / www.iecs.go.kr)



뮤지컬 년센스 잼보리
수녀님들의 대반란 '년센스 잼보리'가 5년 만에 인천에 찾아온다. 넘치는 끼와 유머로 무장한 멋쟁이 신부님이 가세한 시리즈 3탄으로 이미 국내 뮤지컬 역사의 전설이 되어버린 '년센스시리즈'의 맥을 잇는다. 1991년 6월 국내 초연 이래 15년여를 한결같이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격려와 사랑을 받으며 함께했던 '년센스'는 국내 최고의 공연기록(6,276회), 최대의 관객동원(2,456,686명), 최다 흥행수입 등 우리 뮤지컬사를 다시 쓴 작품이다.

일시 _ 4월 29일(토) 오후 4시, 7시30분
30일(일) 오후 3시, 6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1층) 50,000원 / S석(2층) 35,000원
문의 _ 드림25 (526-6693)



뮤지컬 The Fantasticks
‘The Fantasticks’은 세계 최장수 뮤지컬이다. 1960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래, 미국 전역에서 11,000여 회의 공연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포가니스탄에서 짐바브웨에 이르기까지 무려 67개국에서 공연된 바 있다. 42년간 공연된 세계 최장수 뮤지컬, 그 전설을 인천에서 만난다.

일시 _ 3월 4일(토) ~ 4월 23일(일)
평일 오후 7시30분
주말 · 공휴일 3시(월요일 공연없음)
장소 _ 학산소극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청소년 7,000원 / 어린이 5,000원
문의 _ 남구학산문화원 (866-3993, www.haksanculture.or.kr)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 연극 ‘이(爾)’
연극 이(爾)는 온갖 천대와 멸시에도 누구보다 떼떽했던 궁중 광대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음모,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왕과의 애투하고 미묘한 관계를 다루며 웃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생각해 보는 연극이다. 조선시대 궁궐 내에서 질펀하게 펼쳐진 궁중광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연극에 시대성을 담아 놀이정신과 웃음의 코드를 관객들에게 선사하며 자연스러운 음악놀이의 모습을 펼쳐보일 것이다.

일시 _ 4월 22일(토) ~ 23일(일)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층R석 50,000원 / 1층S석 40,000원
2층A석 30,000원
문의 _ 창라이프 (1566-6551)



극단 심년후
사슴아 사슴아
극단 심년후는 2006년 인천연극제 무대에 고려조 목종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사슴아 사슴아〉를 올린 다. 18세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한 목종은 그의 어머니 한애왕후의 섭정 속에 고독하게 지내다 강조의 변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일시 _ 4월 13일(목) ~ 14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_ 계양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_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_ 극단 심년후 (514-2050 / www.samsin.info)

i-신포니에타 볼 정기연주회

인천 음악계를 이끌 어갈 차세대 현악앙상을 i-신포니에타의 볼 정기연주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꾸며질 예정이다. '클래식은 어렵다?'를 부제로 이번 연주회는 음악을 즐기는 기초 예절에서부터 현악기 각 음색과 실내악 구성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작은 수업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봄을 비롯해 봄에 어울리는 왈츠와 탱고 등 단원들이 준비한 깜작 이벤트도 준비된다.

일시 _ 4월 15일(토) 오후 4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티켓 _ 무료
문의 _ 016-315-8665, 833-0956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월	 <세계모형발전전> 신세계갤러리에서는 4월 10일까지 중세유럽의 해양문화를 접해 볼 수 있는 모형 버전과 관련 기념우표들이 전시되는 <세계모형 발전전>을 개최한다.	5	6 (점포) (~23)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3만원, 학생 1만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027~8	7 미추홀 오페라단 제5회 공연 (돈조반니)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0, 7, 5, 3, 2만원 미추홀오페라단 435-1281	8 미추홀 오페라단 제5회 공연 (돈조반니) 오후 3시,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0, 7, 5, 3, 2만원 미추홀오페라단 435-1281	9 가치길영작은학교 정기공연 2006 (영화, 우리의 꿈)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오후 2시 6시 / 무료 가치길영작은학교 / 766-1969 미추홀 오페라단 제5회 공연 (돈조반니)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0, 7, 5, 3, 2만원 미추홀오페라단 / 435-1281
		12	13 극단 심년후 (사랑아 사랑아) 오후 7시30분 계양문화회관 대극장 1만5천원, 1만원 극단 심년후 514-2050	14 극단 심년후 (사랑아 사랑아) 오후 7시30분 계양문화회관 대극장 1만5천원, 1만원 극단 심년후 514-2050	15 인용&조치 시민문화포그렘 III 발레 (장자는 숲속의 미녀) 오후 3시,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3만원, 2만원 / 1588-2341 시립무용단 토요상설무대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로 / 420-2788 I-신포니에타 볼 정기연주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음악)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오후 4시 / 무료 / 834-1055	16 인천&조치 시민문화포그렘 III 발레 (장자는 숲속의 미녀)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3만원, 2만원 / 1588-2341 시립무용단 토요상설무대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로 / 420-2788 I-신포니에타 볼 정기연주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음악)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오후 4시 / 무료 / 834-1055
17	18 인천음악문화원 제40회 정기연주회 (봄밤이 가곡과 아리아의 밤)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7천원 / 420-2781 가족뮤지컬 (마법사 친구들) 인천학생교육문화관 씨리제홀 오후 4시 일반 1만2천원, 학생 8천원 피마세상 572-4281	19 시립교향악단 제268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5천원 / 420-2781 가족뮤지컬 (마법사 친구들) 인천학생교육문화관 씨리제홀 오후 10시10분, 1시120분 일반 1만2천원, 학생 8천원 피마세상 572-4281	20 제26회 장애인인 날 기념식 및 한마음 축제 오전 9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로 사인장애인재활협회 438-0420	21 금요예술무대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16 김유정의 봄 봄 봄 인천학생교육문화관 씨리제홀 오후 3시, 7시 / 2만, 1만5천, 1만 인천학생교육문화관운영부 760-3466~7	22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 연극 (이(爾))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만원, 4만원, 3만원 창라이프 1566-6551	29 뮤지컬 (난센스잼보리) 오후 4시,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만원, 4만원 드림25 / 526-6693 오창현의 매직몬스터 (꿈의 대화) 인천 서구문화관 오후 2시, 4시 / 1만5천원 (주)엔터테인먼트 818-5665
24	25 가족뮤지컬 (마법사 친구들) 여성문화회관 오후 4시 일반 1만2천원, 학생 8천원 피마세상 572-4281	26 시립무용단 제60회 춤마당 · 춤마당 남 · 무(男 · 舞)전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원, 5천원 / 420-2788 가족뮤지컬 (마법사 친구들) 여성문화회관 오후 10시10분, 1시120분 일반 1만2천원, 학생 8천원 피마세상 572-4281	27 페스티벌플랫폼앙상블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로 페스티벌플랫폼앙상블 888-0808	28 피아노 독주회 (어린이를 위하여)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원 / 월화목 02-2266-9235 금요예술무대 오후 7시 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716 오창현의 매직몬스터 (꿈의 대화) 인천 서구문화관 오후 2시, 4시 / 만5천원 (주)엔터테인먼트 818-5665	29 뮤지컬 (난센스잼보리) 오후 4시,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만원, 4만원 드림25 / 526-6693 오창현의 매직몬스터 (꿈의 대화) 인천 서구문화관 오후 2시, 4시 / 1만5천원 (주)엔터테인먼트 818-5665	30 뮤지컬 (난센스잼보리) 오후 3시, 6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만원, 4만원 드림25 / 526-6693 YMCA ENZIAN 오를림 정기연주회 오후 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초대 ENZIAN오를림 / 431-8161
5.1	2 뮤지마리니오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오전10시, 오후2시 6천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 760-3466~7	3 세계모형발전전 3월29일~4월10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갤러리 이음화노벨드신부 시예전 4월1일~6일 (435-8513)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 · 소전시실 제4회 한복대전 4월1일~6일 (425-3248)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만국공원의 기억 4월2일~13일 (455-714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4 제5회 창파 69전 4월15일~20일 (016-378-0627)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남구미술평화원전 4월18일~24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갤러리 제15회남동구문화예술회관플랫폼 및 중국성양구 작품교류전 4월21일~27일 (453-213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 · 중앙전시실 (박에 서다) 정기전시전 4월21일~27일 (011-9714-2685)	5 제5회 창파 69전 4월15일~20일 (016-378-0627)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남구미술평화원전 4월18일~24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갤러리 제15회남동구문화예술회관플랫폼 및 중국성양구 작품교류전 4월21일~27일 (453-213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 · 중앙전시실 (박에 서다) 정기전시전 4월21일~27일 (011-9714-2685)	6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재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동문회전 4월21일~27일 (019-9156-0688)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동화일러스-사랑이야기) 기획 전시회 4월21일~5월31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 제3회 인천미술상 시상식 4월28일~5월4일 (867-2196)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 · 중앙 · 소 · 미추홀전시실	

※ 공연 및 전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일시 _ 4월 15일(토) 오후 3시, 7시 30분, 4월 16일(일)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일반 30,000원 / 학생 20,000원 / S석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7-8401)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명작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발레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러시아 황실 발레의 극치로 대변되는 작품이다. 화려한 장식의 플로레스탄 왕궁과 여성미가 넘치는 아름다운 의상은 작품의 시작부터 관객을 압도하게 된다. 특히 군무가 이뤄내는 아름다운 대형의 춤은 형식미의 절정을 보여준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고전 발레의 원형이 가장 잘 살아있는 발레로 동작이나 안무 등 모든 면에서 고전 발레의 규칙을 가장 충실히 따르고 있어 발레 애호가라면 관람은 필수이다. 귀족적이고 화려한 유럽풍의 무대, 무용수 전원이 보여주는 고난도의 기량은 비단 발레 애호가뿐 아니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특히 3막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의 결혼식 축하연에서는 '파랑새 2인무', '늑대와 소녀', '흰고양이와 장화신은 고양이', '라일락 요정의 춤' 등 온갖 동화 속 캐릭터들이 나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차이코프스키의 환상적인 음악, 마리오스 프티파의 천재적인 안무, 그리고 유니버설발레단의 예술성이 함께 한 편의 명품발레를 이끌어 낸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무대 장치나 의상, 출연 인원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기교 자체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 레퍼토리를 보유한 발레단은 그 수준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동양에서는 최초로 유니버설발레단이 1994년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초연하여 한국 발레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평가 받으며 유니버설발레단은 국내 최고의 발레단으로 재탄생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연보고 야구도 보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예정인 유니버설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인 연극 '이', 뮤지컬 '넌센스 잼보리'를 전화로 예매하면 〈점프〉티켓을 30% 할인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점프〉티켓을 예매하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이'를 전화로 예매할 때 20% 할인 받을 수 있다. 점프 공연 예매고객 선착순 1,500명에게 SK와이브스 프로야구단의 홈경기 무료입장권을 제공한다.

문의 _ 420-2020

마샬 아츠 퍼포먼스

Jump

일시 _ 4월 6일(목) ~ 23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30,000원 (학생 50%할인)

문의 _ 아트노우 (420-2027~8, 424-9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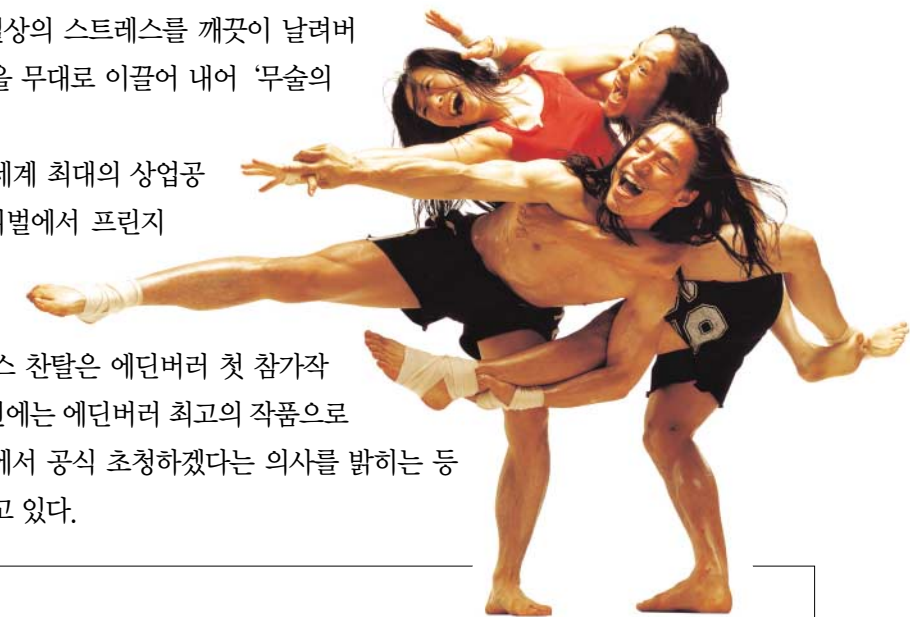
〈점프〉는 태권도, 태권, 쿵푸를 비롯한 동양무술과 아찔한 아크로바트 묘기의 현란함을 접목시킨 '마샬 아츠 퍼포먼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요소가 부족했던 기존의 Non-Verbal Performance와 달리 요절복통 별난 무술가족 이야기가 신명나는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평소에는 힘없어 보이지만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인 할아버지, 태권도 고수인 자상한 아버지와 격파왕 어머니, 술과 연애하는 취권의 대가 삼촌, 유연한 무술을 자랑하는 새침한 딸. 안경에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청학동 총각과 그리고 역시 무술에 일가견이 있지만 어딘지 어설피 보이는 두 명의 도둑 등 하나같이 독특한 캐릭터의 등장인물들이 좌충우돌하며 코믹하고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 간다.

와이어나 보조 장치 없이 펼쳐지는 현란한 공중돌기와 4미터 이상의 고공점프는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답답한 일상의 스트레스를 깨끗이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공연 중간에 관객을 무대로 이끌어 내어 '무술의 고수(?)'로 만들기도 한다.

〈점프〉는 지난 2005년 8월 22일과 8월 24일 세계 최대의 상업공연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프린지 티켓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해외 유명 공연 프로모터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프린지 페스티벌 어셈블리 공연기획실장 루이스 찬탈은 에딘버러 첫 참가작 중에서 이런 성적을 거둔 작품은 없었다며 2006년에는 에딘버러 최고의 작품으로 자리 잡을 것을 확신한다며 어셈블리 극장 차원에서 공식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현재 많은 나라에서 프로모터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2006년 인천연극제

2006년 인천연극제가 4월3일 오후 6시 수봉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간의 축제를 시작한다.

이번 연극제엔 ▲북어대가리(4~6일, 계양문화회관, 극단 엘칸토) ▲연극만들기(12~13일, 수봉문화회관, 극단 마음) ▲사슴아 사슴아(13~14일, 계양문화회관, 극단 십년후) ▲시인 떠나다(15~16일, 수봉문화회관, 극단 산만) ▲달이뜨면 해가지고(18~20일, 수봉문화회관, 극단 피어나) ▲가시고기(21~23일, 씨.아리소극장, 극단 놀이와축제) ▲느낌 극락같은(22~23일, 수봉문화회관, 극단 한무대) 등 7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문의 _ 864-9683

인천의 부흥과 문학산의 부활을 노래하다



‘인천책을 꽃자, 인천책을 보자’ 라는 모토로 인천사랑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책30cm 서가운동본부’ 는 1950년대 문학산의 흑백·컬러 사진이 실려있는 ‘文鶴山’ 을 복간하는 한편 개항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인천 관련 에세이를 묶은 ‘인천의 산책자들’ 을 발간했다.

‘문학산’ 은 의사이면서 사진예술가였던 이중화 선생이 10년 가까운 세월을 헌신해서 1965년 12월 발행했던 38면의 소책자이다. 1950년대 문학산의 흑백·컬러 사진이 담겨있는 이 책은 문학산의 원형을 비롯한 변천상과 비류왕릉, 안관당지, 도천현, 중바위, 갑옷바위, 배바위, 삼호현에 이르기까지 사적이나 전설 등을 담은 문학산 기록의 ‘보고(寶庫)’이다.

당시 2천권 가량 발행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는 일부 서지학자가 소장하고 있거나 도서관 서가에 겨우 몇권 남아있는 희귀본이다. 서가운동본부는 인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문학산을 통해 인천의 정체성과 애郷심을 복돋우기 위해 ‘문학산’ 을 복간하게 되었다.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인 김창수 박사가 엮은 ‘인천의 산책자들’ 은 인천이나 인천의 특정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관찰한 후에 그 내용과 느낌을 기록한 글을 모은 것이다.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인들의 수필과 기행을 근간

으로 외국인의 인천기행문, 간행물 속 인천묘사, 시와 시조 등을 담아 단행본으로 엮었다.

이 책의 제1부는 서울을 비롯한 외지의 한국인들이 인천을 다녀간 뒤 쓴 기행 수필로 구성됐으며 제2부는 인천 사람들이나 인천에 장기간 머물렀던 사람들이 인천에 대해 쓴 글들을 모았다. 제3부는 신문기자들이 쓴 인천관련 보고서나 기사문으로 인천이 처한 현실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제4부는 유럽인들이 본 인천 풍경이며 제5부는 개항 직후에 인천으로 이주해온 일본인들이 개항당시의 인천풍경을 회상한 구술증언들이다.

이밖에 이 책에는 미술사학자 고유섭 선생이 1937년 ‘조강’ 7월호에 발표한 ‘명산대첩’, 수필가이자 평론가인 김동석 선생의 ‘해변의 시’, 고일 선생의 ‘인천석금’ 과 신태범 선생의 ‘인천한세기’ 에 실린 글들이 담겨있다.

문의 _ 도서출판 다인아트 (431-0268)



차 한 잔 | 이승후 (서가운동본부 실행위원장·재능대 교수)

서가운동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인천과 관련한 희귀자료나 흩어진 자료를 모아 책으로 엮는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승후 실행위원장은 “인천은 제물포의 개항과 더불어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정작 위상에 걸맞는 인식의 확산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우리고장을 알리고 정보의 허기를 해소해 인천이 재도약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고자 쉽지 않은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올해는 북간 사업과 더불어 인천책 출판 확대를 위한 정책 세미나 등 ‘인천알기’ 운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진실로 사랑하게 된다’는 말처럼 이러한 책들을 통해 인천 사람과 어린 학생들이 좀더 쉽게 인천을 만나 사랑에 빠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00년전 추억의 공원길을 걷다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의 변천사나 문화적 특성을 음미해보면 인천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중요한 문화콘텐츠 중의 하나이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었던 만국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재)인천문화재단은 4월3일부터 열흘 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실에서 기획사진전 ‘만국공원의 기억’ 展을 개최한다.



만국공원은 1888년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공원이며, 개항 이래 근현대사의 현장으로 역사와 문화적 의의가 큰 장소이다. 서울의 ‘파고다 공원이 한국 최초의 공원’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경성부사(京城府史)에 ‘광무 초년에 만들어진 파고다 공원이 경성 최초의 공원’이라고 언급한 것을 한국 최초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파고다 공원의 조성 연도 역시 정확하지는 않으나, 광무초년이라든가, 충세무사 브라운의 건의에 따라 설치했다는 언급으로 볼 때 1897년 무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천 만국공원은 파고다 공원보다 최소한 9년 앞서 조성된 한국최초의 공원이었다.

만국공원은 지난 120년간, 각국공원, 만국공원, 서공원 혹은 야마테공원으로 불리다가 해방과 함께 다시 만국공원으로 복원되었다가 지금의 자유공원이 되었는데, 공원 명칭의 변천사는 바로 파란만장했던 한국의 근현대사라고 할 수 있다.

만국공원은 인천항에 인접한 응봉산 마루에 위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곳이며 개항장 특유의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고 융합되는 문화기항지(cultural port)였다. 존스톤별장이나 세창양행사택, 오래당 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근대 건축물들이 들어선 공원 일대는 건축박물관처럼 되었으며, 그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술이나 문학 작품의 소재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옛 만국공원과 그 주변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들이 한꺼번에 발굴, 전시될 예정이다. 한때 인천의 랜드마크라고 불렸던 인천각의 근경(近景)과 내부 모습을 비롯해서 세창양행과 전쟁 이후 자유공원 시대의 여러 모습들도 만날 수 있다.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유공원에 대한 추억을 담은 사진전도 이벤트로 마련된다.

문의 _ 인천문화재단 문화네트워크팀 (455-7153)

달동네 박물관, 공공디자인 최우수상 수상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2006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포럼(공동대표 박찬숙 국회의원, 권영걸 대한민국 공공디자인학회장)이 주최한 이 대회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총 55점의 공공디자인 작품을 출품해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이 대상을 수상했다. 우리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달동네 박물관 외에 중구 ‘월미공원 전망대 문화의 거리’와 중구 ‘월미공원 전망대

조성사업’도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문의 _ 시 도시계획과 440-3804

우리시 농산물 믿고 드세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 실시한 ‘2005년 농산물 품질관리 및 업무혁신 등 종합평가’에서 인천출장소(소장 길성균)가 200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사후관리지도, 원산지 단속, 안전성, 농업통계조사 및 청렴도, 민원 만족도, 업무혁신 등에 대한 심사에서 인천출장소는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인천출장소는 ‘친환경 영농단체와 도시 소비자단체 간 만남’의 행사 등을 마련해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다.

문의 _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출장소 431-2706

송도에 국제화 보건소 건립

송도국제도시에 해외에서 유입된 전염병 예방과 내·외국인 치료를 위한 국제화 보건소가 건립된다. 연수구는 2008년까지 85억원을 들여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내 1,600여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국제화보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일반 진료실, 외국인 진료실, 상담실, 재활실, 특수촬영실, 양호실 등이 들어설 국제보건소는 일반 보건소 업무 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염병 예방과 역학조사, 예방접종, 외국인 건강검진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 연수구는 대규모 개발과 외자유치로 인해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화 보건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간다.

문의 _ 연수구 보건소 810-7810

국제학교 줄이어 설립

지난 3월 8일 ‘송도국제학교’ 착공식이 열렸다. 송도국제학교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내 2만1000여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200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지어진다. 교과과정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부설 유치원과 초·중·고교(12학년)이며, 정원은 2,100명이다.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30%범위 내에서 국내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학교는 미국 보스턴 근교에 위치한 명문 사립학교인 밀튼아카데미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문의 _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사업개발자 02-6260-3344)

한편, 중구 영종도에도 2008년 영국계 국제학교가 들어선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3월 3일 영국 노드앵글리아(Nord Anglia)그룹과 영종도 운북동 일대에 조성중인 복합레저단지에 학생수 1,056명(48개 학급) 규모의 국제학교를 세우기로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제학교는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운북단지 남서쪽 예단포 일대 1만5백여평 부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로 세워질 계획이다. 노드앵글리아 그룹은 영국의 12개 명문 사립학교와 74개 유아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상하이 등 전세계 12곳에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_ 인천도시개발공사 260-5000)

국제학교	송도지구	영종지구
개 교	2008년 9월	
규 모	2,100명(유치원, 초·중·고)	1,056명(유치원, 초·중·고)
제 휴	미국 밀튼아카데미	영국 노드앵글리아
부 지	2만1000여평	1만500여평
학 비	연간 약 2만달러	
국내학생비율	재학생 수의 10%(개교 5년간 30%)	

기타큐슈市와 직항으로 교류해요



지난 3월12일 우리시 자매도시인 일본 기타큐슈市에 신공항이 개항했다. 우리시 행정부시장과 국제협력관 등 대표단은 공항개항을 축하하기 위해 기념식에 참석한 후 향후 교류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은 “신공항이 개항함에 따라 양도시 간 공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타큐슈市 부시장은 “인천공항과 기타큐슈공항 간의 직항로가 개설되길 희망한다.”며 우리시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 440-2842

‘인천의 도시계획’ 학술상 수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최한 제23회 학술상 수상식에서 ‘1883~2001 인천의 도시계획’ (2004년 12월)이 전국 최고의 학술 성과로 인정받았다. 인천발전연구원원이 발간한 ‘인천의 도시계획’은 1883년 인천 개항에서부터 송도국제도시 조성까지 120여 년간의 인천의 공간적 성장과 변화 등 도시계획 변천과정을 담고 있다. 총 6권(영문판 포함)을 연대별, 시대별로 정리한 이 학술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시 도시계획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 _ 시 도시계획과 440-3354

초지대교~경서동 도로 건설

인천도심과 강화를 잇는 84호선 도로가 강화도 초지대교~김포시 대곶면 약암온천~검단~경서동을 잇는 16.4km 구간을 연결하는 국가지원도로로 건설된다. 우리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즈음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3천12억원을 들여 2010년께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 도로는 2009년 완공되는 초지대교~길상면 온수리를 연결하는 7.3km도로와 연결된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72

청라지구 모터파크 조성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2011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자동차부품 특성화단지 ‘인천 모터파크’가 조성된다. 총 46만평, 총 사업비 3천430억원 규모로 건립될 모터파크에는 집적단지(15만평), 테마파크(15만평), 모듈화단지(10만평), 유통단지(4만평), 기술센터(1만평), 제조지원센터(1만평)가 들어선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65% 이상이 입주하게 될 모터파크는 3천4백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청라~화곡 간선급행버스 도입

버스전용도로에 철도시스템을 적용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가 서구 청라지구와 서울 화곡동 사이에 도입된다. BRT는 청라지구~계양구 효성동~서울 화곡동 구간(17.9km)에 설치되며 서구 가정오거리와 청라지구 2곳에 환승센터가 건립된다. 우리시는 총 788억원을 들여 1단계 구간인 계양구 효성동~화곡동(12.3km)을 2008년까지 완공하고 나머지 구간인 청라지구~효성동(5.6km)을 2010년까지 구축해 경인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교통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74

특허 등록된 우리시 버스정류장

우리시는 버스정류장 디자인을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특허청에 디자인등록했다. 우리시는 지난 200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인 ‘혁신적인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버스정류장을 디자인했다. 버스정류장은 네 가지 형태로 해양도시 인천의 역동성을 상징적으로 도안해 제작했다. 2005년까지 200여 개소에 설치했으며 올해 강화와 옹진 등 150개소에 새로 설치된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884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

한국과학재단은 지난 2월 전국 25개 과학영재교육원 중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을 2005년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했다.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교육프로그램, 교육성과 등 20여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1998년 설립 이래 올해로 8년째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초등과 중등과정으로

개설된 교육원은 기초·심화·개인교습 등의 3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그동안 대통령 장학생 6명을 배출했으며 부산 과학영재학교 22명, 민족사관고 6명, 인천·서울·한성과학고 165명을 입학시켰다.

문의 _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770-8917

남항부두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지난 2월28일 인천항 남항 컨테이너부두 3만8천384평이 추가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인천항 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던 내항 및 배후지 65만5천평과 연계해 동아시아 및 서해안의 물류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인천항 컨테이너부두는 싱가포르 PSA가 삼성물산 등과 합작으로 설립한 인천컨테이너터미

널(주)이 2001년~2004년 바다를 매립해 만든 컨테이너 전용부두다. 연간 713만톤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09년까지 2천264억원을 들여 화물처리 능력을 연2천100만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에게 관세유보, 부가세영세율 적용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문의 _ 인천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880-6306

무의도에서 ‘예술해요’

중구 무의도에 음악가와 화가 등 예술인들을 위한 ‘국제 예술인 마을’이 조성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174만평의 무의·용유도 관광단지에 예술인마을 조성을 포함한 2단계사업을 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무의도 중심 사업부지에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인이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인 마을에는 예술인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와 콘서트홀, 콘도미니엄 형태의 예술인 숙박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용유도에는 2009년말 완공되는 공항철도 용유역 인근 35만평 부지에 상가와 엔터테인먼트

트 센터를 중심으로 한 아울렛 센터와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문의 _ 인천도시개발공사 260-5000

인천高, 야구 100년 기념탑 세워

한국 야구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인천 고등학교에 기념탑이 세워졌다. 지난해 한국야구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국내 최우수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수한 인천 고등학교는 74회 동창회원을 주축으로 성금 6천여만원을 모아 마련했다. 기념탑은 가로 3m, 세로 5m의 청동 조형물로 인천고의 상징인 호랑이가 지구위에서 포효하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상’을 표현하고 있다. 인천고 총동창회는 한국 야구의 역사를 기리고 무한한 도약을 위해 기념비를 제작했다.

문의 _ 인천고등학교 451-0500

과학정보 포털사이트 운영

우리는 ‘사이언스 인천(Science Incheon)’ 사이트를 시 홈페이지와 연계해 운영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최근 과학기술동향, 과학자료 게시판, 과학상

식, 과학체험마당 등의 과학기술정보와 영재교육, 학부모 교육, 교사자질 향상 프로그램 등 과학기술 교육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 홍보를 위해 과학문화 축제와 과학관 안내, 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안내도 소개된다. 우리시는 일반시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과학기술정보 포털사이트를 운영한다.

문의 _ 시 과학기술과 440-3042

첫 외국병원 NYP, 연세의료원과 파트너 결정



국내 최초의 외국인 병원이 2008년 말 송도국제도시 1공구에 들어선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New York Presbyterian)은 송도국제도시에 새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파트너로 결정했다. 미국의 10대 병원 중 하나인 NYP는 6억 달러를 투자해 2만5000여 평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며 의료진의 10%를 미국에서 직접 파견할 예정이다. 외국병원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지만 내국인 환자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소방방재본부 최우수기관 선정



인천소방방재본부가 ‘2005 소방관서 혁신평가’에서 전국 소방본부 16곳과 소방서 163곳 등 전국 179개 소방관서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이 소방행정 관서를 대상으로 소방행정, 방호, 예방, 구조구급, 대피 및 대응 등 소방업무 전반을 5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결과다. 인천소방방재본부는 예방분야에서 전국 관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민간 자율방화능력 향상과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문의 _ 인천소방방재본부 463-6305

의정소식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5월31일) 인천광역시 광역의원 선거구역

선거구명	선거구역
중구 제1선거구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중구 제2선거구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동구 제1선거구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동구 제2선거구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남구 제1선거구	도화1동, 도화2동, 도화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남구 제2선거구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남구 제3선거구	송의1동, 송의2동, 송의3동, 송의4동, 용현1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4동
남구 제4선거구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 제1선거구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연수구 제2선거구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남동구 제1선거구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남동구 제3선거구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5동
남동구 제4선거구	만수1동, 만수4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평구 제1선거구	부평1동, 부평4동, 부평5동, 부개1동, 부개2동, 일신동
부평구 제2선거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산곡3동, 십정1동, 십정2동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1동, 갈산2동, 삼산동, 부개3동
부평구 제4선거구	청천1동, 청천2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계양구 제2선거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양구 제4선거구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서구 제1선거구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서구 제2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서구 제3선거구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서구 제4선거구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강화군 제1선거구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강화군 제2선거구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 제1선거구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옹진군 제2선거구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교육청소식

올해 13개교 신설

우리시에 올해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5개 등 모두 13개 학교가 새로 문을 연다. 연수구 1곳, 남동구 5곳, 부평구 4곳, 계양구 1곳, 서구 2곳 등이며 내년에는 14개 학교가 신설된다. 한편 남구 도화동의 인천체고는 서구 마전동 검단지구로, 남동구 간석동 인천예술고는 연수구 옥련동으로, 남구 도화동 선화여상도 남동구 간석동 현재의 인천예술고 부지로 이전한다.

문의 _ 인천시교육청 423-3303

| 올해 신설 초·중·고교 |

학교	지역	이름	학급수	개교
초등학교	연수구 동춘동	신송	36	3월
	남동구 논현동	장도	42	5월
	계양구 동양동	당산	30	5월
	남동구 논현동	동방	36	9월
	부평구 구산동	금마	24	9월
중학교	남동구 논현동	논현	36	3월
	남동구 구월동	성리	36	3월
	서구 당하동	당하	36	3월
	부평구 산곡동	산곡	36	3월
고등학교	부평구 삼산동	진산	36	3월
	부평구 삼산동	영선	36	3월
	남동구 논현동	논현	36	3월
	서구 원당동	원당	36	3월

인천의 미래 환경 한자리에

기간 _ 4월 25일(화) ~ 4월 28일(금)

개막전 _ 4월 25일(화) 오전 11시

전시 _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 (연수구 동춘동 소재, 인천지하철 1호선 동춘역 1번 출구)

문의 _ 인천환경센터(850-5660~2) / www.ienvitech.or.kr, www.ietec.or.kr



환경친화도시 인천. 우리시가 갖고 싶은, 가져야할 타이틀이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올해로 네 번째 '인천환경기술전'을 연다. 21세기 신 전략산업인 환경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기업체에 필요한 우수한 환경기술과 환경친화제품을 보급해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업과 시민, 학생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올해 환경기술전은 인천환경센터(센터장 최계운 인천대 교수)와 인천일보 주관으로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환경축제의 장으로 열린다. 전시회 역시 사상 최대 규모로, 지방행사가 아닌 전국 규모의 전시행사로 꾸며진다. 기술전에는 141개 부스에 110여개 기업·단체·행정기관이 참여하며 전시장 내에는 수질관, 대기관, 폐기물·재활용관, 친환경관, 종합환경관, 지역환경센터관, 인천환경비전관 등 7개관이 구성돼 다양한 신기술과 신제품이 전시된다.

특히 올해는 인천환경비전관의 테마관이 눈길을 끈다. 테마관에는 하천살리기, 의제21 등 우리시와 민간단체가 파트너십으로 일군 테마관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우리시의 환경살리기 노력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2006 환경 플래쉬 애니메이션 공모전'의 수상작을 테마공원에 전시해 기술전을 찾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인천의 환경 비전을 예측할 수 있는 종합교육의 장으로서 기업체에게는 정보교류의 장이, 시민에게는 환경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기업과 시민이 함께 지역의 환경개선에 동참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이들 바르게 이끈다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요즘 우리 주위에서는 유아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둘러싼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애들 학교 보내기 무섭다는 부모들의 하소연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 관념을 갖고 있다면, 학교 폭력이 상대방은 물론 나 자신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서 스스로 예방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니, 누이들이다. 고학력 여성들의 능력을 그대로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이들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여성 봉사자들을 선발해 일정시간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상담활동을 벌이도록 한 것이 1987년이니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지금까지 모두 1천 390여명의 상담봉사자를 배출했고 해마다 4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는 우선 각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심성수련, 인성교육, 진로지도, 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집단상담 활동을 벌인다. 개인상담이나 리더쉽교육, 간부연수, 부모심성수련, 교사심성수련 등 특별활동 상담도 함께 한다. 지난해만도 초·중·고 총 158개 학교를 찾아가 모두 5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상담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182명의 봉사자가 우리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활동 위원으로 위촉받아 75개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학부모 심성수련 역시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의 중요한 활동이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두 곳의 지역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학생교육문화회관 1층에 자리 잡은 중앙상담실이고 다른 하나는 북구도서관 2층의 북구상담실이다. 이 두 곳에서는 봉사자중 선별된 25명의 전문 강사가 상주하면서 우리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한다.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키우는 법, 가족의 소중함과 나 자신 찾기 등 부모로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함께 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고 또 철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자원봉사를 지원하면 우선 엄격한 심사와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야 한다. 선발 후에는 학교에서의 활동을 돕기 위해 60시간의 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상담과 관련된 기초 교육과 보수 교육, 특강,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버 교육 등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 밖에도 미술치료교육, 심상기법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회원들은 폭력예방사, 성교육 전문강사, 아동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까지 취득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모두 청소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을 선도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고 밝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봉사회의 이정순 회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한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는 20년의 세월동안 깊고 굵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었다"며 "늘 환영받는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의 _ 인천교육과학연구원 880-0721





욕심 버리면 나눌 것이 생겨요



글 • 박상문 (사단법인 해반문화사랑회 이사장)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봄꽃소식이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해마다 이때쯤이면 봄맞이 대청소를 한다. 올해도 겨우내 묵은 먼지와 여기저기 쌓인 가재들을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집안 정리를 할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을 선별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집안을 대청소하거나 이사를 할 때 이 문제는 약간의 골칫거리일 것이다.

오래 전 우리 어머니도 어느 것 하나 버리지 못하고 대청소를 하거나 이사를 다녔었다. 그리고 그 때마다 누이들이 어머니 몰래 필요 없는 물건을 슬쩍슬쩍 버렸던 것이 생각난다. 그런데 그런 누이들도 버리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누렇게 색 바랜 고물 책들이다. 이 책들은 내겐 누이들 몰래 버리고 싶었던 첫 번째 물건이었다.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고 20여년을 살아오면서 몇 번의 이사를 하는 동안 나도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고 다니는 물건들이 있으니 그것은 누렇게 변색된 고물 책들과 여기저기서 수집한 잡동사니들이다.

무슨 보물이나 되는 듯 끌고 다니던 책과 잡동사니들을 버리고 나누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몇 년 전 서재를 꾸미기 위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책들을 한 곳에 모아 놓으니 방하나가 책으로 가득 차서 서재가 아니고 종이 창고 같았다. 버려야 할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분위기 좋은 서재를 꾸미기 위한 애초의 계획은 불가능해졌다. 마음 단단히 먹고 버릴 책들과 나눌 책들을 선택하였는데 오래된 책들과 중·고생이 된 아이들에게는 불필요한 아동용 서적들에 대한 욕심을 버렸더니 많은 책들을 주변과 나누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려보았고 이로 인해 책을 나누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서재가 홀룡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정리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갖추게 된 것은 읽지 않는 책들에 대한 욕심을 과감하게 버린 결과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쌓여지는 욕심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그 욕심을 버리면 얼마나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읽지 않는 장롱 속의 옷가지, 한 번도 쓰지 않은 찬장 속의 신접살이 그릇들,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써먹지 못한 고등교육 지

식들을 썩혀두고 있는 것은 욕심스런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매일 반복되는 신변잡담 수준의 국한된 언어와 행동으로 인한 한정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틀에서 안주하려는 것이 욕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욕심을 버리면 나눌 것과 나눌 곳이 보인다.

가끔 우리에게는 생활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변화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자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생활 속에서 변화에 따르는 일은 쉽게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현상에 따라 변화를 시도할 수 있기도 하다. 자기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일은 욕심을 버리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버릴 것과 나눌 것을 분별하고 실행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일 것이다.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무엇인가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 법정스님<무소유>중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에 얽매어 나 자신도 모르게 쌓이는 욕심은 얼마나 많은가? 자꾸 무언가를 이루려하고, 더 가지려고 애쓸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럴수록 작은 일에도 탐욕스러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탐욕은 그 스스로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기 시작했다. 세상 일이 어디 욕심대로 되는 것인가? 그저 열심히 주변과 어울리며 살아갈 때 빛나는 것 아닐까. 법정스님의 〈무소유〉와 최근 읽은 류시화의 〈지구별 여행자〉,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는 무소유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었다.



인천관광

인천 토박이 '인천 이' 씨예요. 저는 인천살고 남친은 서울 살고... 자연스럽게 인천에서 데이트 하는 일이 많은데요, 인천은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차이나타운 갔다 왔는데 너무 멋져요. 그리고 인천대공원, 영흥도 조개구이도 넘넘 좋아요. 인천을 사랑합니다.

이선미 (연수구 연수1동)



봄맞이는 힘들어

며칠 전에 시골 할머니댁을 찾았습니다. 온 가족이 냇물이랑 논바닥이랑 돌아다니며 봄맞이를 해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며 냇이랑 버들강아지를 찾았지만 아직은 안보이네요. 너무 다리가 아파 결국엔 자팡이를 하나씩 장만했습니다.

윤소진 (연수구 동춘2동)



아 그리운 옛날이야

몇 십년 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와 국민학교 체육대회날 찍은 사진. 세월은 유수처럼 흐른다고 했나요? 시간이 흐른 만큼 제 주름살도 많이 늘어 이제는 옛 사진을 보며 추억을 되새기곤 합니다.

오화섭 (남구 학익1동)



나 어때?

작년 가을에 가족들과 애버랜드에서 사진 찍게 멋있는 포즈를 잡아보랬더니 일부터 해도 이런 표정 안나오겠다. 사진을 보고 얼마나 배꼽을 잡았던지...

김상욱 (부평구 부개3동)



생일 파~르!

1982년 동생 생일날, 같은 동네에 사는 동생친구들이 모여 파티(?)하기 직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동생 생일이 음력으로 1월 14일이라 요즈음도 동생 생일상에는 항상 각종 정월 대보름 나물 반찬이 올라옵니다.

안학수 (연수구 옥련동)



볼고 싶은 풍선껌

일곱 살이던 1969년. 그해 봄별은 따뜻한 듯 한데 그땐 귀하기도 했던 풍선껌, 한번 불어보고픈 간절한 소망을 겨울바람보다 더 쌀쌀하게 거절하던 동생. 그래도 볼고 있는 그 풍선껌은 부러워라~

고혁찬 (서구 가좌3동)



윗줄은 웃고 밑줄은 울고

군 입대하고 처음으로 받은 유격훈련 때 소대 천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기 전에 갑작스럽게 사진을 찍으면서 소대원들이 한번에 뭉치면서 찍었습니다. 그 당시 참으로 힘든 훈련이었지만 이 사진을 보면 추억으로 남아 웃을 수 있어 좋습니다.

김현기 (전라남도 장성군)

꽃 물었시유~

길가 가득한, 노오란 유채를 보니 갑자기 뛰어 들어가 파묻히고 싶었다. 아, 봄날. 너무나 아름다워라.

한은희 (남구 용현5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보물이에요” 인천성문화센터

축하해주삼.
저, 아바뻘이었어요.

이웃집 아저씨의 어린이 성추행 후 살인, 교도관의 여성 재소자 성추행 그리고 자살, 게다가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까지.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2006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남과 여... 나아가 사람간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성문제에 이제 막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어린이 5명(동막초 정지훈, 장영현, 이호정, 원연찬, 맹정희)과 함께 문학경기장 내에 있는 인천성문화센터를 찾았다.

글 • 한정민 (전 더클래스 기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2억분의1 경쟁을 뚫고 태어난 존재

성교육은 비단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 대부분은 어른이다. 우리 사회 최고위층이라는 국회의원이나 비뚤어진 죄수를 교화시키는 교도관, 동네 신발가게 아저씨 모두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인천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은 물론 모든 연령대의 시민에게 과학적인 성지식과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4년 11월 개관한 뒤 유치원생부터 시작해 초중고생의 단체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실과 전국 성교육관계자 세미나, 성문화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인천 성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 도중 부끄럽다고 눈을 가리면 안돼요~” 인천성문화센터 운영실장이 아이들을 반갑게 맞는다. 아이들에게 엄마처럼 따뜻한 눈길을 건네자 다소 서먹하고 긴장했던 정희, 연찬, 호정, 영현, 지훈이의 표정도 부드러워진다.

센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면으로 뻗은 복도 양 벽면에 성을 소재로 한 그림과 흑백사진들이 가득하다.

‘아침, 눈을 가리면 안 되지’ 아직은 부끄러움보다 호기심이 앞서는 것 같다. 아이들의 토랑토랑 눈망울이 그림과 사진에 한참씩 고정된다. 복도 끝에는 자궁을 형상화한 문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이 세상에 나오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안식처다. 문 앞에 ‘만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만남 방 프로젝트에서 뽑어져 나오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재미난 만화를 연상케 하는 영상물이 흥미롭다. 관람 후 “난 2억분의 1 경쟁을 뚫고 태어난 존재”라며 함박웃음을 짓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을 깨닫게 한다.

만남 방을 거쳐 이른 방은 ‘탄생’. 학교 성교육 시간에 봤음직한 남녀 생식기 해부 모형과 태아의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모형 등 다양한 체형 자료가 기다리고 있다. 탯줄을 매단 아기모형을 실제 태아인양 조심스럽게 안아보며 아이들은 마냥 신기해한다. 윤 실장이 자궁 안에 있는 아기 모형이 탯줄을 단 채 몸 밖으로 분만되는 과정은 중학생이상에게만 보여준다고 기자에게 귀띔한다.

탯속의 아기에게 음경이 보이면? “아들” 아기가 크면 발로 엄마 배를 차는데 그게 뭐죠? “태동이요.” 다리부터 나오면 큰일이죠? “제왕절개하면 돼요.”

그저 어리기만 할 것 같은 아이들이 척척 대답을 한다. 학교 보건실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 이렇게 만져보고 체험하진 못... 했... 꿈~”

무게 7.2kg의 임신 체험복을 입으면서 지훈이는 숨이 차는지 말을 맺지 못한다. 정희, 연찬이, 호정이, 영현이도 체험복을 입고는 서너 발자국도 옮기지 못한 채 벗겠다고 아우성이다. “내가 탯속에 있을 때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중얼거리면서.

담배를 피울 때 탯속 아기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며 몸서리치는 아이들. 흡연의 심각함까지 제대로 본 셈이다.

임신하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엄마 고마워요,
절 낳아주셔서



고 추 먹고 맴맴
담배먹고 맴맴

월경, 몽정을 하게 되면 축하파티를

천장에 흰 구름이 등실등실 떠 있는 세 번째 방은 '성장의 방'이다. 청소년들의 발달단계와 관심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뒤집어서 생각해보며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 사실 성교육은 매우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 단순히 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가치관의 교육이기도 하다. 또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어 친해진 후 6학년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다섯 친구는 무슨 일이든 함께 의논하고 실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몽정이란 말을 들어봤냐는 윤실장의 질문에 '몽정기 1·2'를 봤다며 까르르 웃는 모습이 해맑다. 엄마 아빠 세대에

게는 쑥스러운 단어였지만 지금 아이들에게는 다르다. 우리의 성은 이렇게 밝고 건강해야 하는 것이다.

월경이나 몽정을 하게 되면 어른이 되었다는 신호탄이니 기쁘게 생각하고 파티를 열라는 윤실장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의 빠른 성장속도를 생각하면 어쩌면 이미 파티를 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네 번째 마당 '표현의 방'은 작은 소극장을 연상케 한다. 이성문제나 성문제 등 자신이나 친구의 고민을 역할극을 통해 풀어낼 수 있는 장이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인형극으로 대신하지만 초등학교 최고학년인 우

리 친구들은 직접 의상을 입고 소품을 활용해 역할극을 꾸며본다.

'비오는 날... 우산 속으로 뛰어든 낯선 아저씨. 밖으로 내치기가 미안해 동행을 허락하는데... 낯선 아저씨는 자꾸 으



속한 골목으로 나를 유인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어린이 성폭행은 사회 곳곳에서 정상인의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해 자행된다. 가해자 중에 가족, 친척, 아이 봐주는 사람, 이웃, 코치, 교사, 의사, 심지어는 사회사업가나 종교지도자들도 있다. 잠재적 성범죄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이들의 범행을 예방할 조치들은 아직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렇듯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 역할극이란 간접경험을 통해 수상한 행동을 경계하고, 방어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깨우쳐줘야 하는 것이다.

다소 무거운 주제의 역할극을 마치면 현란한 싸이키 조명 속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도 있다. 호정이의 탁월한 리듬감각과 능숙한 스텝에 모두들 놀라워하며 한바탕 웃고 나니 '행복의 방'이 기다린다.

가족간의 서로 작은 배려부터...

미래 사회의 주방과 거실을 꾸며 놓은 '행복의 방'에서는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저래야 한다'고 믿었던 고정관념을 통쾌하게 깨뜨린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같고, 다만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다를 뿐이다.

언젠가 가정을 이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어떤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가져야 하는 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는다. 그리고 각자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해본다. 하얀 인생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채색해나가야 하는 과정을 생각하

는 걸까? 다섯 친구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윤정에 실장은 마지막으로 예쁜 자를 선물로 건네며 소감을 묻는다.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면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론 친구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했고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꿈도 다른 다섯 친구들이지만 오늘 인천성문화센터에서의 경험은 똑같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모양이다.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소중한 만큼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가족 또한 고마움의 대상이다. 이날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방법과 더불어 나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귀한 사실을 깨우쳤을 것이다. ☀



※체험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초등학교생은 1시간 30분, 중고생은 2시간~2시간 정도. 참가비는 따로 없고 제대로 안내를 받으려면 미리 예약(☎446-1318)을 해야 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엔 문을 닫는다. 문학경기장 1층 16번 게이트 아래를 찾아가면 된다.

인천성문화센터 윤정에 실장이 추천하는 성교육 관련 도서

- 성교육만화, 우리들이 궁금한 성 이야기 (깊은 책속 웅달샘)
-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이게 나야 / 어린이를 위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 이야기 (크레용하우스)
- 엄마, 난 어디서 나왔어? (청어람미디어)
- 엄마와 함께 보는 성교육 그림책, 소중한 나의 몸 (비룡소)
- 소년소녀를 위한 성교육 그림책 셋, 나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웅진닷컴)
- 엄마,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달라요? 초등학교생과 중학교생에게 엄마가 들려주는 성교육 이야기 (사계절)
- 청소년 성, 생식보건 100문 100답 (성문화연구소)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밴댕이가 제철을 만났다. 저장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사시 사철 회로 먹지만 밴댕이는 그물에 걸리면 제 성질을 못 이기고 곧 죽어버리는 까닭에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그 중에서도 4월부터 6월까지 밴댕이가 알을 낳는 시기라 씨알이 굵고 살이 기름져 가장 맛있는 때이다.

바다가 가까운 우리시에는 강화 선수리 포구의 밴댕이 횡집촌을 비롯해 예술회관 앞 먹자골목의 밴댕이 타운 등 ‘뭍’ 만난 밴댕이 거리가 여럿 있다.

인천국제여안여객터미널을 좀 못미쳐 오른편으로 좀 낡은 듯 오래된 해양센터가 눈에 들어온다. 오밀조밀 1층부터 2~3층으로 빼곡히 비릿한 냄새로 손님을 끄는 식당들. 하나 같이 대표이름표엔 ‘회무침’이 빠지지 않는다. 10여 년 전만

해도 불과 6곳밖에 없었다는데, 이제는 30여 곳이 밀집해 있어 ‘회무침 타운’을 이뤘다. 이번에는 여러 맛집 중에서도 맛집, 그리고 원조라고 자부하는 ‘금산식당’ (884-1324)을 찾아 맛의 비결을 캐내기로 했다.

금산식당이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벌써 30여년 전의 일이다. 손맛이 좋아 시어머니와 함께 연안부두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던 김옥규 사장의 눈에 버려지는 밴댕이들이 눈에 띄는 우연이었다. 당시만 해도 밴댕이는 천대받던 생선이었다. 잡히자마자 죽어버려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회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연안부두에는 수많은 고깃배들이 드나들었는데 천지에 널려있는 밴댕이들은 모두 어묵공장으로 혈값에 팔려나가는 신세였다.

김 사장은 밴댕이를 활용할 방법을 찾다가 잘게 썰어서 회로 조금씩 손님들 상에 올리기 시작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밴댕이회를 찾는 손님이 늘어나자 더 이상 잘게 채를 썰 시간이 없어 지금처럼 뽕뽕 발라내고 반 마리씩 회를 떠서 내기 시작했다. 술안주로 팔리던 밴댕이를 식사대용으로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탄생한 것이 밴댕이회무침. 밴댕이와 신선한 야채를 초고추장양념으로 버무렸다. 밴댕이의 깔깔하고 좀 뽕뽕한 식감을 보완해 준 것이 바로 오징어. 고향이 강릉인 김사장은 흐느흐느 입에 착 달라붙던 오징어회의 기억을 되살려 밴댕이회와 적당히 섞어주었다.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고작 테이블 6개에 방 한 칸이던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 회무침을 들고 신문지를 깔고 앉아 먹거나 물통을 엮어놓고 둘러앉아 먹는 손님들도 생겼다.

이렇게 입소문으로 밴댕이회무침이 알려지자 회무침집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해 건물 절반이 회무침 간판으로 채워지게 됐다.

금산식당에 회무침을 배우러 나선 사람은 임명선씨(부평구 십정동·35세). 2학년, 5살 두 아이의 엄마인 임씨는 아이들에게 맛난 음식을 해주기 위해 요즘 우리시 여성복지관에서 밀반찬 만들기를 배우는 등 요리에 폭 빠져있다. 금산식당의 김옥규 사장은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서 일명 ‘쪽박집’을 ‘대박집’으로 키워낸 경력이 있는 터라 초보 요리사를 다루는 데 이력이 난 모습이다.

밴댕이를 요령있게 회뜨는 법을 차근차근 설명하는가 싶

더니 어느새 일일 요리사 임명선씨의 손에 같이 쥐어져있고 임씨 역시 보기 좋게 회를 떠낸다. “곧 식당 내도 되겠네~”라는 김 사장의 칭찬에 임명선씨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이어 밴댕이와 오징어를 잘게 채썰고 일곱가지 야채와 함께 섞는다. 여기에 금산식당의 비법이 숨겨진 초고추장과 양념장이 곁들여지고 참기름으로 고소함까지 듬뿍 담아 빼알 갇게 먹음직스런 밴댕이회무침이 탄생한다.

접시위에 소복이 담은 무침을 한 젓가락 듬뿍 떠서 손바닥에 올려놓은 상추위에 놓고 다시 담아 한입. 밴댕이 특유의 고소함이 입안 가득하다. 다음에는 큰 그릇에 밥을 넣고 회무침과 뒤섞는다. 밥과 회와 야채가 어울려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된다. 술 안주로, 밥반찬으로. 요모조모로 요긴한 먹거리니 밴댕이 소갈딱지인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다. ☀



밴댕이 맛나게 무치기

〈재료〉 3~4인분 기준

밴댕이 30마리, 오징어 2마리, 양배추, 오이, 당근, 양파, 쪽파, 깻잎, 미나리, 양념장(고춧가루, 물엿), 초고추장(식초, 콜라첨가), 설탕, 깨소금, 마늘, 식초, 참기름

〈만드는 방법〉

- ① 밴댕이는 뼈를 발라내고 가늘게 채썰고 오징어도 채썰어 3:1로 준비한다.
- ② 야채는 밴댕이 길이에 맞춰 가늘게 채썰어 놓는다.
- ③ 생선과 야채는 3:4의 비율로 준비한다.
- ④ ③에 양념을 넣어 골고루 버무린다.

〈Tip〉

- ① 밴댕이회를 뜯 때는 생선 배가 나를 향하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지느러미를 비껴나가게 한다.
- ② 밴댕이는 미끄러우므로 회를 뜯 때 한손에 장갑을 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③ 생선과 야채를 버무릴 때는 살살 흔드는 기분으로 생선살이 허물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푸른 꿈 움트는 문화 보금자리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서구청소년수련관' 이 문을 열고 3월 9일 개관식을 가졌다. 지하 2층 지상 3층, 2,202㎡(1,655평)의 수련관은 총 사업비 124억 7900만원을 들였다고 한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서구청 소년수련관으로 봄나들이 가보도록 하자.

글 • 심자수(인명여고 1학년 청소년웹진 MOO 제6기 청소년기자)



수영장, 노래방, PC방, 헬스장, 박물관... 한 곳에 다 모였다!

수련관의 지하 1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다른 수련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영장이 청소년 시설로 들어온 것이다. 25m길이의 6레인 규모로 깨끗하고 질 좋은 시설을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1층에는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PC방이 '인터넷 카페'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최신 컴퓨터 50대 규모로 아이들이 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1층에는 공연장, 공연준비실, 식당·매점 등이 있고 2층에는 청소년들이 시험 끝나고 많이 찾는 노래방도 자리 잡았다. 가장 신기한 곳은 생활민속전시관이다. 곳곳에 미니 박물관을 연상시키는 옛 물건들은 현대적인 건물 안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또 아카데미 스포츠단 활동실, 영상편집실, 비디오 감상실, 음악활동실, 창작활동실, 상담실·접견실, 영화감상실, 포켓볼장 등이 있다.

3층에는 딱딱하고 긴장이 감도는 도서관이 아닌 열린 도서관이 있다.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정말 편한 나만의 책장이다. 가운데에는 하늘 정원이 있다. 하늘을 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하늘처럼 높은 꿈을 꿀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벤치나 쉼터 기능을 하는 부수적인 시설들이 없어서 좀 아쉽다. 3층에는 이 외에도 문화강의실, 자유열람실, 동아리활동실, 공연연습실, 샤워실 등이 있다.

집-학교-학원을 순회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맑은 공기와 밝은 햇살에 더 붙어 야외 시설이 있다. 야외 시설은 X-game장, 농구장, 임벽타기 등이다.



우리도 즐겁다! 배운다!

수련관에서는 방과 후 교육과 문화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교육, 문화적 결핍의 보충, 청소년 문제 예방,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대, 사교육비 절감, 계층간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효과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이 곳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2006년 4월에서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청소년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보호 및 정서지원, 학습 및 자아성장 지원, 숙제지도·보충학습·창의성 개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이밖에도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동아리와 청소년 운영위원회 1기를 모집하고 있다. 진보하는 청소년 정책과 제도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류·수련을 제시하고, 청소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이끌며, 상담·진로탐색처럼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녀와서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를 적극 반영하여 '색의 미'를 꽃말, 벽, 소품 하나하나에서도 느낄 수 있고 아기자기하게 꾸민 차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이나 자동문, 엘리베이터는 모든 사람을 배려한 올바르고도 당연한 시설이었지만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작은 곳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다. 주말은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말 가족들이 하루 소풍으로 즐기러 오기에 안성맞춤이다. 꼭 '서구청소년수련관'에 가보길 권하고 싶다.

이용시간 _ 화~금 10:00~20:00(동절기 19:00)

토, 일, 공휴일 10:00~18:00(동절기 17:00)

이용문의 _ 서구청소년수련관(577-7979, 578-7979)

전채요리(Appetizer) 먹는 법

'배고픔'이 최고의 애피타이저



전채요리는 식욕을 촉진시키기 위해 식사 전에 가볍게 먹는 요리로서 메인 코스 전에 먹는 엑스트라 요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할 때 모든 요리가 다 나오기 전에 먼저 먹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기지만, 서양요리에서는 요리가 나오는데 바로 먹기 시작하는 것이 매너이다. 서양요리는 뜨거운 요리든 찬요리든 가장 먹기 좋은 온도일 때 고객에게 서브되고 좌석 배치에 따라 상석부터 제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도가 변하기 전에 먹는 것이 예의이면서 또한 제 맛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다.

그러나 4~5명이 식사를 함께 할 경우에는 요리가 전부 나오는데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먼저 나온 경우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윗사람이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런 경우에는 윗사람이 나이프와 포크를 잡은 후에 먹기 시작하는 것이 에티켓이다. 한편 친한 사람끼리 식당에서 각자 주문을 하여 식사를 할 때에는 요리가 나오는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때 식사 시작은 조금씩 달라도 되지만 식사를 끝내는 타이밍은 될 수 있으면 맞추도록 하는 것이 예의다.

전채요리는 식전에 먹는 식욕 촉진제 같은 것으로 뒤에 나올 생선이나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 타액이나 위액의 분비를 활발히 해두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전채요리는 아무리 맛이 있어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곧 이어 나올 메인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없으므로 적당히 먹는다. 메뉴에 전채요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프부터 시작해도 되고 또 수프를 생략하고 생선요리부터 바로 시작해도 된다. 전채요리가 무엇이든간에 '공복(空腹)'이야말로 최고의 애피타이저이다.

자료제공 _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762-5181)

후루룩~ 찹~ NO!

수프는 진한 수프인 포타주(Potage)와 맑은 수프인 콘소메(Consomme)가 있다. 포타주의 경우에는 담백한 요리가, 콘소메의 경우에는 진한 맛의 메뉴가 어울리며 코스가 많은 정찬요리에 적합하다.

뜨거운 수프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선 스푼으로 조금 떠서 맛을 본 후, 스푼을 이용해 저어 식히도록 한다. 입으로 후후 불어가며 식혀 먹는 것은 좋지 않으며 차를 마시듯 소리를 내어 먹는 것도 옳지 않다. 아울러 스푼으로 뜬 수프를 한 입에 먹지 않고 스푼 위에서 나눠먹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손잡이가 달려 있는 그릇에 담긴 수프는 손으로 그릇을 들고 마셔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홍두개, 팔미도에 떠오른다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수익은 높게, 위험은 낮게... 해주면 안되겠니?

글 • 윤향희 (HSBC은행 인천지점 PB 454-7012)

자장면 500원만 깎아주면 안되겠냐는 백수의 애절함이 담긴 TV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만큼이나, 금융기관을 찾아오는 대다수 고객들의 애절함 또한 마찬가지다.

“안되는 게 어딴니?”라며 또 한 번 우격다짐을 해 볼 수 있으면 좋련만 은행원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결같이 “High Risk, High Return 이 어찌구 저찌구...”

위와 같은 말들로 기대감을 무너뜨리다보니, 한푼 두푼 어렵사리 모은 종자돈의 갈피를 못 잡는 초보 투자자들은 여기 저기 기웃거리를 반복하며 저금리시대에 혹사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고객들과의 첫 대면에서 꼭 물어보는 것이 있다. 첫째는 과거 투자경험이고, 둘째는 투자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기대하고 있는 목표수익률은 몇 % 정도인지와, 셋째는 그 보다 더 중요한 위험감수율로 손실이 생겼을 경우 과연 몇 %까지 참을忍을 실천하며 견딜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과정을 거치고 난 후 고객에게 적절한 기대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여 필자와 상담한 후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때 초보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정기예금 대비 2~3배 정도의 수익률에 만족한다는 것과, 위험감수율은 되도록 낮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초보

투자자 뿐만 아니라, 최근같은 시장 상황에서의 공격적인 투자패턴을 잠시 쉬어가길 원하는 투자자들 또한 마찬가지의 니즈로 기대수익율을 다소 낮추고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이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상품으로는, 첫째,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이다. 주식과 채권에 50:50 정도의 비율로 투자가 되어 채권투자에서의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하며, 거기에 주식 투자를 통한 + α 의 기대수익

을 바랄 수 있는 상품이다. 상승장에서는 주식형 상품 대비 수익이 낮을 수 있지만, 최근과 같은 조정기나 하락장에서는 하락폭이 낮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중위험군의 상품으로 단기적인 기대수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에 적절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수연동형 예금이다. 채권투자를 통한 안전한 수익을 먼저 취한 후, 그 수익으로 지수에 관련된 옵션거래를 통해 조건이 달성될 경우 약정된 수익률이 확정되는 상품인 것이다. 구조가 이렇다보니, 투자상품이면서도 100% 원금을 보장해주어 보수형 고객들에게도 은근히 기대심리가 높은 상품으로, 기대 수익 또한 조건달성시 10~20% 내외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기예금만도 못한 이자 또는 원금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당시의 시장상황과 조건 충족조건을 잘 판단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중도해지시에는 원금에 손실이 오는 만큼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 지수연동형 인덱스 펀드이다. 인덱스 펀드의 구조 자체가 지수의 흐름을 추종하는 구조로서, 주가 하락시에는 당연히 인덱스 펀드 수익률 또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건이 되는 지수가 다양화되어 주가지수 뿐만이 아니라, 실물 투자의 대표격인 부동산, 유가, 금, 환율 등 물가상승을 대비 빠른 상승을 보이는 실물투자의 가격을 지수화하여 그 해당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는 실물 펀드도 대량 출시되었다. 여기에 또 하나 시시때때 변화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수연동형 예금과 같은 옵션거래를 추가하여 조건충족시 목표수익율 10~20% 내외의 안정적인 수익을 조기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투자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 원금은 보장되지 않고, 원금보존추구형 펀드들로 그 조건에 대한 것은 상담시 꼼꼼히 짚어봐야 하며, 중도환매시 역시나 원금에 손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으로 투자해볼 만 하다.

오늘은 자장면도 500원 깎아 사먹지만, 언젠가는 탕수육도 시켜먹을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하루빨리 현명한 금융재테크를 통해 부의 증식을 실현시켜야겠다. ☀



오장육부의 거울, 피부

글 • 이무일(인천시한의사회 홍보이사, 화생당한의원장 551-7582)

피부가 나빠지는 원인은 외부 환경 요

인과 몸 안의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

다. 외부 원인은 먼지, 태양빛, 온도변

화,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투, 오염된

대기환경 등이며 몸 내부의 원인은 이

미 내장에 존재하는 손상이나 질환,

대장에서 올라오는 똥독, 자동차 엔진

에서 연소하고 남는 찌꺼기처럼 세포

대사의 산물로 발생하는 찌꺼기도 원

인이 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기미가 끼고, 여드름과 점, 주근깨, 주름이 생기고, 피부도 처지고... 이쯤되면 거울을 보기가 싫어질 만하다. 더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 얼굴이 왜 이러냐 하면서 한마디씩 던지면 피부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다.

피부가 나빠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 환경 요인과 몸 안의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원인은 먼지, 태양빛, 온도변화,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투, 오염된 대기환경 등이며 몸 내부의 원인은 이미 내장에 존재하는 손상이나 질환, 대장에서 올라오는 똥독, 자동차 엔진에서 연소하고 남는 찌꺼기처럼 세포 대사의 산물로 발생하는 찌꺼기도 원인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혈액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혈액의 순환장치가 발생하면 어느 부위에는 혈액이 들어가지 못해서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문제가 발생한 세포를 교환해주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피부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혈액순환이 잘되려면 몸 안의 어느 것 하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간담, 폐, 대장, 심소장, 비장, 위장, 신장, 방광 등 몸 안의 모든 처리기관이 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피부가 건강해지려면 우선 간의 해독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간 기능저하는 인체의 최대 배설기관인 피부를 통해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에 피부의 여러 증상을 야기한다. 지나친 음주나 과로, 스트레스, 가공식품의 선호 등이 간 해독기능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피부와 체모의 전체기능을 주관한다는 폐의 기능저하도 피부의 문제를 나타낸다. 인간이 숨쉬는 공기의 오염이 아토피를 포함한 각종 신증 피부질환을 발생시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여성의 경우 피부건강의 축도는 하초(下焦)라고 불리는 자궁과 대장, 방광의 기능에 있다. 머리는 차게, 복부와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인체 생명유지의 근본인데 서구화된 의복문화는 자꾸만 하초를 냉하게 만든다. 한겨울에도 짧은 치마와 속옷 하나로 냉기를 가리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을 보면 좋은 화장품이 무슨 소용인가 싶다. 하초가 냉해지면 어혈로 인해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생리통이나 월경불순, 변비가 발생하고 이는 앞서 말한 간의 해독기능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피부트러블이 많은 여성은 지금 당장 편히 누워서 자신의 배꼽아래를 만져보라. 굉장히 아프고 딱딱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 것이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썩차나 생강차, 계피차로 하초를 따뜻하게 해주면 피부와 자궁, 대장이 다 좋아한다. 요즘 유행하는 반신욕과 족욕, 좌욕도 우리 피부와 몸의 고급 화장품이 될 수 있다. ☀

가느다란 쌍꺼풀 속의 찰랑거리는 웃음 고정현 씨

글·김 류 (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표 준말 ‘예쁘다’로는 오히려 그 예쁨이 제대로 드러날 것 같지 않은 여자.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쁘다’로 써야만 그 ‘이쁜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날 것 같은 여자. 고정현. 그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여자의 눈동자가 생글거리며 피워 올리는 웃음의 빛깔과 다문 입술이 꾸미는 그 아이 같은 귀염성을 옹게 그려낼 것이다.

“세 살 때, 제가 세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서른아홉에 홀로된 젊은 엄마가 언니와 저를 기르신 거죠. 그 어머니는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쯤은 춤지 않은 푸른 청죽(靑竹) 바람이 불어오고, 여기저기 봄꽃이 다투어 고운 몸짓을 드러낼 고향 마을 담양(潭陽). 간난(艱難)의 시절이라도 세월은 흘러 여자를 고등학생으로 키웠고 어느덧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온 것이다. 서울로 가야지. 앞서 올라온 언니가 있으니 여자는 그나마 쉽게 서울을 디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잡은 것이 미용 기술. 그것이 여자의 미래였고 오늘이었다.

“절대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손으로 이루어라. 남의 것은 오물보다도 더 더럽게 여겨라. 어머니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 심지(心地)가 있어 샴푸일, 바닥 청소, 가위 등속의 도구들을 정리하는 일이 힘들지 않았다.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들. 그런 내공이 쌓여 오늘도 저렇게 웃을 수 있고 저렇게 젊을 수 있을 것이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 이룩한 여자의 내면. 그것이 눈부실 만큼 환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고정현 헤어」. 이번 호는 사실 남자를 취재 할 차례였다. 그런데 그게 귀찮았다. 네 시간인가 다섯 시간인가, 종일토록 서서 떠들다가 동 인천역에서 부평행 전철을 탄 것은 오후 4시. 졸음은 쏟아지고, 그러면서 남자를 만날 일이 그다지 내키지도 않았고…. 요즘에는 이런 직업을 가진 남자도 많으니까, 아니 오히려 더 유명한 남자 미용사가 많다니까, 고정현? 그런 남자 중의 한 사람이겠지.

깜빡 조는 사이 차는 멋대로 황사의 봄을 향해 달려가 버렸고, 버려진 듯 늙고 추레하게 이 세상 마지막 나귀같은 몰골로 절뚝절뚝 걸어서 당도한 곳이 「고정현 헤어」. 부평거리가 좀 낯선 것도, 10분 넘어 무릎이 아팠던 것도, 그리고 이쪽보다 앞서서 아무도 와 있지 않은 것 역시 우울했다.

피로와 상심과 삶. 아아, 뒷에 걸린 것이야. 유리창, 부평 백화점, 아파트 단지, 썬팅이 된 햇빛, 그리고 엉뚱하게 미용실 유리창 앞에 앉아 있는 나귀 한 마리…. 그때 고정현! 웃음을 얼굴에 잔뜩 묻힌 환한, 언뜻 누이동생처럼 스스럼없이 애교스런, 매력덩어리 여자가 나타난 것이다.

“아!”

하마터면 ‘그랬군요’ 소리를 낼 뻔했다. 이름 끝의 한 글자는 자기가 지었다면서 하필이면 왜 고정현이란 말인가. 그제서야 눈에 확, 봄꽃이 물려 들어온다.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의 이쪽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무슨 꽃이었든가. 화분 가득하게 핀 노란 꽃들은 어느 이른 봄 들판에서 복수초(福壽草)라도 옮겨 온 것일까.

“어머, 차 한 잔 드려야죠?”

남자는 여자 앞에서 우울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남자의 표정은 개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어쩌면 하느님도 동의하실 것이다. 더구나 여자는 약간 갈색 기가 도는, 맑고 물기 많은 눈동자를 가지지 않았다. 이쁘다. 매력이다. 일부러 형클어뜨린 듯한 헤어스타일, 하얀 피부, 균형 잡힌 체형. 그리고 자신의 차밍 포인트를 내보일 줄 아는 코디. 눈 찌라기처럼 작고 흰 점들이 수없이 박힌 검은색 시폰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와 검은 스타킹과 검은 구두와…. 김정색을 좋아하는 것은 이쪽과 조금은 통하는 취미이다.

참, 여자는 목걸이도 귀고리도 하지 않았다. 핀 하나 꽃은 것이 없다. 왜? 이런 질문은 그냥 입속에서 삭이고 만다. 그게 좋으니까. 그게 더 아름다우니까. 다른 어떤 장신구도 걸치지 않은 단순미, 간결미. 얼마나 고급스러운가. 멋이 있다. 그런데 나귀의 우울이 다 풀어진 것을 여자가 눈치 채지 못한 것처럼, 어쩌서 이쪽은 반대로 여자의 손과 매니큐어를 보지 못한 것일까.

여자는 끊임없이 구김살 없는 미소를 짓고 있다. 차라리 미소를 피워 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하다. 가늘게 속으로 쌍꺼풀이 진 것은 찰랑거리듯 이런 웃음을 자주 웃기 때문일 것이다. 아, 이 봄날은 입을 다문 채 입술로만 착하고 환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고 있구나. 이제 도착한 사진작가는 부럽게도 그 아질아질한 웃음을 고스란히 앵글에 담아 두겠지.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그렇지는 않다. 여자는 지금 이 순간, 자기 나름대로의 가장 이쁜 나이를 먹고 있다. 지나쳐 바라진 미(美)도 아니요, 가지가 훔 듯 무겁고 숨찬 염(艶)도 결코 아닌, 자신의 고운 나이를 먹고 있을 뿐이다. 십이지(十二支)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이 나라 전체에 유독 그 동물 띠만 널리 입에 오르내리는 바로 그 나이! 아무리 뜯어봐도 여자는 그저 밝고 건강한 것이다. 편안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고정현 헤어」는 건강하고 편안할 이유를 아주 충분히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다. 첫째는 손님이 많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회에 대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증명하듯 은은하게 전식(電飾)이 된 110평 실내에는 머리 손질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그득하다. 손님들은 여자의 성실과 재능을 신뢰하는 것이고, 여자는 사람과 사회에 대해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팀장 김순화 씨가 원장인 여자의 눈치를 살피며 이쪽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설명하던 ‘매년 5월8일이면 대대적인 행사로 할머니들 무료 머리 케어, 독거노인들, 교도소 재소자들 방문, 그리고 여기저기서 수시로 오는 요청을 마다 않고 받아들이는 봉사’로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 어깨를 덮을 지경이던 머리를 조금 커트한다. 가위가 내는 단음의 금속성이 늘 슬프고 처량했던 나귀의 귀에도 어쩌면 그렇게도 경쾌하게 들릴까. 봄이다. 겨우내 얼음 밑에 숨어 있던 알몸의 미나리 향기다. 느긋하고 따스한 샴푸, 두피에 전달되는 가볍고 상냥한 압박감. 흠뻑 취하고 싶다.

“1981년 인천에 와서 처음 문을 열었는데…. 점포는 전부 두 군데예요. 여기 부평 대학빌딩의 본점, 그리고 저 롯데마트 4층에 있는 롯데마트점. 송림동 월마트에 있던 월마트점은 요 얼마 전에 정리했거든요. 직원은 다 합쳐서 40여 명 정도구요. 부탁드릴 게 있거든요. 절대 봉사한다는 말 같은 거 길게 쓰지 마세요.”

마지막 젊은 직원들과 우르르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도 아이 같은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그게 또한 예쁘지 않고 이쁘다. 그래요. 늙지 말고 오래 남아 있어요. 종다리처럼, 아지랑이처럼, 벚꽃처럼. 그리고 그렇게 봄날이 더 깊고 못 견딜 것 같으면 이런 시도 한 줄 읽을 수 있을 거야.



밤에 홀로 눈뜨는 건 무서운 일이다
밤에 홀로 눈뜨는 건 괴로운 일이다
밤에 홀로 눈뜨는 건 위태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왕망(王莽)한 폐허에 꽃이 되거라! 시체 위에 벌써 일어나야 할, 머리털이 흔들흔들 흔들리우는, 오- 이 시간, 아까운 시간.

〈서정주, 「문(門)」부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여자가 풍기는 이쁨과 귀염성, 그 매력은 선하고 곧고 밝은 마음을 신념처럼 몸속에 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의지의 또 한 표정이기도 한 것이라고. ☀

친구, 바비큐 되다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구정때 있었던 제 친구의 일을 소개할까합니다. 저는 2남4녀 중 막내로 태어나 강화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지금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하는 35살의 노총각입니다. 구정때 어머니가 계신 강화에 내려갔습니다. 친구 놈들은 강화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어서 명절날이면 친구들과 만나서 회포를 풀곤합니다.

그날따라 제가 내려간다고하니 동창인 친구는 돼지를 잡겠다고 파티를 열자고 했지요. 그래서 그날 저녁 숲을 사다가 온 동네가 떠나가라 돼지 한마리를 잡았지요. 그런데 화근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숲을 피우던 친구가 겨우 한가닥 불씨를 살려 신문에 붙이려던 것이 그 친구의 어머니가 비닐하우스를 고친다고 쌓아두었던 비닐에 불씨가 옮겨 붙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번졌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들은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지라 그 친구가 혼자 불을 끄기 위해 온몸이 시커멓게 그을림과 동시에 머리에선 김이 나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는 순간 “오악. 너 왜 그래?”라며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돼지 그을리랬지 누가 너 그을리라 했노.” 다들 한바탕 웃고. 그날 더 맛있는 돼지 바비큐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다치지 않아서 무척 다행입니다.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친구 덕에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친구야 덕분에 잘 먹었다~”

김승용 (강화군 불은면)

이제는 추억속으로

‘파티’ 하면 대부분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즐거움보다 더 큰 의미의 파티를 경험한 이야길 하고자 한다.

2006년 2월 17일. 남들에게는 그냥 지나간, 평범한 날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화여고 1학년 5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날이다. 흔히 쫄파티라고 불리는 종업식날. 유난히 서로에 대한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던 우리 반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와 낯설었던 우리에게 첫날부터 사진을 찍어주시던 정 많은 신은주 담임선생님. 또 선생님의 지도에 잘 따르던 착한 우리반. 사진을 영상으로 보면서 지나간 추억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또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글을 읽어주실 때는 모두 울고 있었다. 이런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파티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즐거움보다 더 큰 우리반의 사랑, 정이 묻어난

파티였던 것 같다. 이제는 추억속이지만...! 난 영원히 우리반을 사랑할 것이다. 인화여고 1학년 5반! 모두 사랑해!

김지윤 (남구 주안동)

메뚜기떼 습격사건

때는 바야흐로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4명이 한 친구의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한 지 2개월이 된 신혼이었죠.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했더니,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집들이였죠.

저희는 화장지, 세제, 가습기 등 여러 가지 선물을 사 가지고 갔어요. 친구도 저희들을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삼겹살과 소갈비는 기본이었고, 돌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잡채와 여러 가지 산적들. 친구 아내의 음식 솜씨는 최고였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의 아내는 요리학과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음식과 술을 먹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면서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네 집 냉장고에 가득찼던 음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날 이후 저희의 별명은 ‘메뚜기떼’가 되었습니다.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작물을 거덜 내고야 마는 메뚜기떼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 우리 친구들은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임의 이름은 바로 ‘메뚜기떼’입니다. 언젠가 또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 4명 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멋진 이벤트를 해주고, 또 집들이도 해서 소중한 시간을 갖자고 말이죠. 우정이란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홍용혁 (계양구 병방동)

보랏빛 가면무도회



송년회라고 하면 꼭지가 돌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십상이지만, 무작정 마시기보다는 주제와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송년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천여성회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의 파티가 있었다.

작년 겨울 십정동 ‘삶이 보이는 창’에서 열린 인천여성회의 송년모임 ‘보랏빛 가면무도회’ 역시 거한 술보다는 여성들의 흥겨운 수다와 감춰두었던 끼의 발산이 돋보였던 자리였다. ‘보랏빛 가면무도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회원들은 저마다 옷, 스카프, 가방, 장신구 등 보

랏빛 장식에 자신만의 개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가면을 만들어 참가했다.

파티소식을 접하자마자 우리들은 무얼 입을까, 어떻게 꾸미고 갈까, 정말 남다른 개성으로 함께 하고 싶었지만.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평범한 보라색 옷을 입고 참가했다. 가사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온 엄마들이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춤과 노래로 한해를 마무리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듯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다음해는 어떤 주제로 파티를 열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가 생겼다.

장혜인 (부평구 일신동)

공공 언 생일파티

1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나눴던 잊지 못할 생일파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워낙 정이 많고 소녀 같으셨던 저희반 담임선생님은 매달 우리들의 생일을 챙겨주셨습니다. 제 생일은 1월. 추운 겨울방학에 속해있어서 언제나 쓸쓸히 지나야 했던 저에게는 설렘이었습니다. 마침 1월에 마지막 정동진 기차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1월 생일자인 특별히 정동진에서 생일파티를 하게 되었답니다.

바다에서 생일파티를 한다는 벽찬 감동에 정말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다에 도착해서도 해를 못 볼 수도 있다는 다른 선생님의 진심 어린 걱정에도 불구하고 해는 빨갛고 동그랗게 금세 피어올랐습니다. 설렘으로 가득 찼던 파티는 더욱더 불을 지피게 되었죠.

하지만 이게 웬걸요. 교실 교탁에서 사진 찍고 과자를 먹던 편안하고 따뜻한 생일은 어디로 가고 목도리에 장갑에 외투에 공공 묶어싼 우리들은 모래사장엔 쭈그러 앉아 초코파이도 아닌 계란 두 판위에 불꽃 없는 촛대를 간신히 세우고는 생일파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이들의 입은 모조리 얼어버려서 노래도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보통때 선생님은 한사람 한사람 뚝을 들이며 정성스레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이날은 선생님도 추우셨는지 포즈 한번 바꿀 시간도 없이 한번에 4장의 사진을 파파팍 찍으셨습니다. 휴~

설렘으로 시작했던 정동진 생일파티는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다음달 글의 테마는 ‘청소’

다음달 테마는 ‘청소’입니다. 청소에 얽힌 재미있는 글이나 경험담을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화면 왼쪽 프레임 하단의 ‘월간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4월 18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종업식날 받아든 생일사진은 아이들의 발그레해진 볼과 귀가 뒤에 떠오른 해 마냥 빨갛게 얼어버리고 콧물도 훌쩍거리던 추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반 친구들에게는 가장 귀한 추억이었을 것입니다.

김 희 (부평구 부평2동)

우리가족의 연말파티

지난 해 12월 31일 단 하루를 남겨놓고 우리가족은 초졸하지만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작은 연말파티를 가졌답니다. 하루 24시간은 물리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인데 1년을 마무리하는 날은 늘 느낌이 각별한 법이잖아요. 좀 더 열심히 살걸, 아이들에게 좀 더 너그러울걸, 책을 좀 더 가까이 할 걸...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 늘 부족하고 아쉬움만 가득 남기 마련이죠.

몇 가지 음식과 케익을 가운데 두고 여러 얘기를 나누다 캠코더로 새해 소망과 결심을 말하는 장면을 찍어 두자는 제안에 다들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씩 했지요. 올해는 꼭 담배를 끊겠다는 남편, 올해는 태권도 검은띠를 꼭 따겠다는 아들, 올해는 키가 10cm이상 컸으면 좋겠다는 딸, 꼭 악기를 배워보겠다는 나까지, 그냥 말로 한 마디 하고 마는 것 보다는 캠코더로 찍어서 증거를 남기게 되니까 약간은 강제성이 있을 것도 같고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한번씩 그때를 돌이켜 보겠지요. 부, 건강, 자아실현 등 거창한 ‘이상’ 대신 지극히 작은 일상이 실질적인 행복을 주는 게 아닐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 내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느끼겠지만 그걸 버티는 것은 주변사람, 특히 소중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올해 12월 31일에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벌써 궁금해지네요.

조예은 (부평구 삼산동)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마라톤대회



노들담복지관은 제 2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즐겁게 하나가 될 수 있는 ‘한마음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3회를 맞는 대회에서는 함께 달리는 마라톤의 행복과 더불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한마음마라톤대회에서 어울림을 통해 장애인과 편안한 이웃으로 함께 할 수 있

는 체험을 나누고, 가족과 이웃이 하나로 통합되며,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 생활해 가는 지역공동체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시** : 4월 22일(토)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계양구 야외공연장(작전동 월마트 옆)
- **대회종목** : 0.5km/ 1km / 10km 구간
- **대상** : 누구나 참여가능(가족단위 참여권장)
- **참가인원** : 1,300명(조기마감 할 수 있음)
- **참가비** : 7,000원
- **참가기념품** : 모든 참가자에게 기념 티셔츠, 완주 기념메달을 드림
- **보험가입** : 참가자 전원 상해보험 가입
- **접수방법**
 - － 홈페이지 접수 : 노들담복지관 홈페이지(www.ntd.or.kr)에 신청한 후 온라인 입금
 - － 전화 접수 : 노들담복지관(542-3711)으로 신청한 후 온라인 입금
 - － 방문 접수 : 노들담복지관 안내실
 - － 온라인번호 : 한미은행 440-01086-247

예금주 : 노들담복지관(복지관에 직접 납부 가능)

- **접수기간** : 3월 22일(수) ~ 4월 7일(금)

문의 _ 노들담복지관 (542-3711)

네티즌과 함께하는 공명선거 퀴즈 이벤트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축제의 선거마당을 만들기 위해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네티즌과 함께하는 공명선거 퀴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 **이벤트명** : 네티즌과 함께하는 공명선거 퀴즈
- **기간** : 4월 ~ 5월까지(매월 1회 실시)
- **참가대상** : 전국의 네티즌 누구나
- **참가방법**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icec.go.kr 또는 인천시선관위)에 접속

- **당첨자선정** : 매월 말일 참여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
- **당첨상품** : 당첨자 주소로 상품권 등기 우송
- **당첨발표** : 매월 5일(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메일발송)

문의 _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438-3873 http://icec.go.kr)

인천의료원 4월 무료검진 안내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소외계층 및 시민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장소**
 - － 4월 10일(월) ~ 14일(금) (5일간)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1층 외과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 **검진명** : 유방암검사(만 40세 이상만 실시)
- **검진인원** : 100명

문의 _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총무인사팀

(580~6478, 580~6651~5)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하세요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무고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들의 인권과 권익을 옹호하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2005년 1월 6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 **센터에서 하는 일**
 - － 상담지원 : 심리·정서적 지원, 전문상담지원, 특수치료지원
 - － 피해지원
 - ▷의료지원 : 협력병원 통한 응급조치 및 의료적 치료지원(정신적, 신체적)
 - ▷생계지원 : 생계형 재정지원, 자활 재정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범죄현장 정리, 학업지원, 생필품 지원 등 기타
 - － 화해조정
 - ▷화해조정 : 범죄발생 후 일차적 보호지원, 민원적 피해요구 조정, 집단피해조정, 사건에 대한 화해중재
 - ▷법률지원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제도 안내, 법률자료·정보 제공
 - ▷사법보좌 : 법정, 수사기관 출석 시 사법보좌 동행

- **센터가 필요한 이유**

- －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인권과 권익 옹호
- －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회복
- － 위기상황 대처 및 2,3차 피해 예방
- －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지원

- **지원대상** : 강도, 살인, 폭행,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가족과 유족 (가장사망, 빈곤가정, 생계불가 등)

- **상담일정**
 - － 매주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오후 12시 ~ 오후 1시 점심시간 제외, 공휴일 제외)
 - － 전화, 면접(내방, 방문), 온라인 상담(24시간).
 - －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킵니다.

상담 문의 _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구 학익2동 278-1 인천지방검찰청 1106호, 868-4999, FAX : 867-4999, www.icvc.or.kr)

카운슬러대학 열립니다



해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의 학교부적응과 등교거부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가 크게 늘어납니다.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달래보거나, 이것저것 물어보아도 아이들은 입을 굳게 다물거나 오히려 화를 내며 관계가 악화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어려움은 청소년기 아이들이 갖는 심리적 특성을 잘 이해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청소년전문상담기관인 인천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센터가 위기청소년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거듭나고 학부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3월 6일 ~ 4월 28일
- 신청장소 : 군·구 보건소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 첨부서류(각 1부) : ❶ 불임 진단서 ❷ 민등등록등본 ❸ 건강보험카드 ❹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최근 3개월 이내)



2.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
 - －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	평균소득 80%	지역 등급	직장 등급	혼합(지역+직장)
2인	242만원	30등급(61,750원)	25등급(54,430원)	26등급(57,790원)
3인	262만원	31등급(64,780원)	26등급(57,790원)	27등급(61,150원)
4인	282만원	34등급(74,630원)	28등급(64,510원)	30등급(71,230원)
5인	302만원	36등급(81,200원)	29등급(67,870원)	31등급(75,040원)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인공수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지역번호없이 1644-7373)

4.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중 113개소

5. 선정 및 통보

- 신청자중 유자격자가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연령, 불임기간 차이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 지원
- 선정결과 통보 : '06년 5월 초

6. 기타 사항

- 상세한 내용은 '2006년도 불임부부지원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분야별 → 업무편람·사업안내 및 지침 18982번 '06. 3. 5)를 참조
- 관련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소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

문의 _ 시 보건정책과 (440-2744) 군·구보건소,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031-440-9644~7)

모들의 자녀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상담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카운슬러대학'을 엽니다.

- **일시** : 4월 18일 ~ 5월 26일
 - (매주 화·목 2회 / 마지막 주는 목·금)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시까지 3시간
- **대상** : 자녀지도와 청소년 상담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상담관련 종사자
- **장소**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강의내용**
 - － 초급 : 청소년의 특징과 문제영역에 대한 상담적 접근
 - － 중급 : 미술치료

- **인원** : 40명 선착순 모집

문의 및 신청 _ 청소년상담지원센터 (429-5562~3)

2006 생활체육광장 열립니다

인천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시민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광장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4월 ~ 10월 오전 6시~7시

지 역	운영장소	프로그램
동 구	송현초등 만석비치 송현아파트공원	생활체조 생활체조 생활체조
남 구	용현체육공원 용현초등 남부체육공원 우성아파트공원	생활체조 생활체조 생활체조 생활체조
남동구	구월체육공원	생활체조
계양구	작동초등 학마을공원 작전공원	생활체조 생활체조 생활체조
서 구	근린공원 은지초등	단학기공 단학기공
중 구	종합경기장 자유공원	단학기공 단학기공
남 구	문학경기장 수도사 뒷산	단학기공 단학기공
남동구	중앙공원1 중앙공원2 경신산 거머리산 종합예술회관	단학기공 단학기공 단학기공 단학기공 단학기공
계양구	오조산공원	단학기공
서 구	석남약수터	단학기공
부평구	산곡남중 선포약수터 부원초등 부평공원	단학기공 단학기공 단학기공 단학기공
연수구	청량산	단학기공

문의 _ 시 생활체육협의회 (881-8671~3)



good morning incheon + April 57



여걸 씹스의 맹세

“꼭꼭하게 멋지게 살기”

“누군가 어려울 때 서로 찾아가기”

“먼저 시집가기 없기”

새내기들이 바다 앞에서 사회 출정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수평선을 한동안 말없이 응시하며 우정의 다짐을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바다 앞에서 굳은 맹세(?)를 마친 그들은
‘파이팅’ 한번 크게 외치더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걸 씹스’ 들이 인생의 파도를 멋지게 헤쳐 나가길 기원해 봅니다.

(무의도 하나개 해변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생일케익도 떡이젠 떡으로!



전임, 취임, 축하, 창립, 생일, 약혼, 결혼기념일,
선생님, 어르신 찾아뵈실 때, 운전면허증 딴 날,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날엔
우리 떡, 떡케익, 떡 선물세트는
특별한 날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문의전화
1544-1582